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느님 아버지, 창고로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이 기독교인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1백여년 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9월 23일 (토) 제 1651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교회, 백인 기독교인 43%로 감소!

PRRI, 지배적 다수에서 소수 전략...종교와 정치함수 역학관계 변동 예고

40년 전엔 81%... '세속적' 미국인 58%

43%, 한번 기울기 시작한 백인 기독교인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백인이며 기독교인 미국인은 전체 인구에서 81%를 차지했다(1976). 그러나 이제는 백인들은 절대적 다수 자리를 내놓고, 기독교인 싸움에서도 비백인 미국인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본격적인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 6일 워싱턴DC에 소재한 종교 관련 여론조사 기관인 공공종교연구원(The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은 미국의 신앙생활에서 지배적 다수였던 백인 기독교인은 이제 인구의 43%로 크게 낮아졌다는 방대한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America's Changing Religious Identity).

PRRI는 2016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미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101,438명) 설문 및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표본 오차는 0.4% 포인트다. 이 기관의 이전 조사에서 미국의 역사를 좌지우지해왔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개신교) 숫자는 2008년 잠시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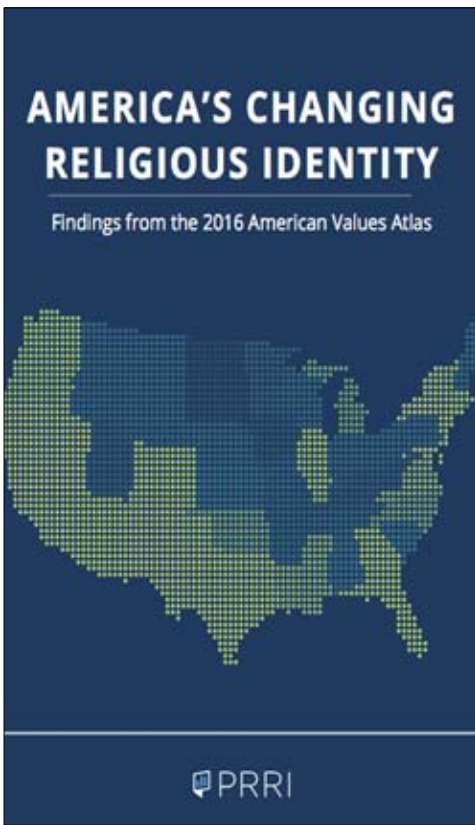
미국에서 백인 기독교인의 하락세, 그것도 이제는 과반수 미만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장이 크다. 실제로, 백인 대안 우익 세력이 펼쳐는 시위나 테러들 역시 자신들의 영향력과 기독교 감소에 따른 위기에 비로써기 때문이다. 따라서 PRRI는 설문 대상자들에게 종교적 질문뿐만 아니라 정당 측 정치 관련성까지 설문했다. 그러나 본지는 이번 설문 결과들 중에서 발견된 교회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만을 발췌 요약한다.

PRRI의 설문 결과는 지난 2015년 퓨 리서치에서 발표한 설문 결과(America's Religious Landscape Study)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백인 비율은 46%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난 2년 동안 가파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퓨 리서치가 동원한 설문 인원(35,000명 이상)에 비해, PRRI는 거의 3배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시도한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정확도나 신뢰도에 있어서, 이번 결과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PRRI의 공식 보도를 처음 보도한 매체는 타임(The Time)이다. 타임은 인터넷을 통해 "40년 전만 해도 미국인 열 명 중 여덟 명이 백인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43%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America Keeps Getting Less White and Less Christian).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비백인 기독교 미국인은 히스패닉계라고 PRRI의 결과를 인용했다.

백인 기독교인의 분명한 하락세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예견됐다(본지 2012년 8월 25일자, "2012 대선, 와스프(WASP)몰락의 서곡" 참조).

와스프는 초창기 신대륙을 밟아 국가의 기반을 다진 '영국계 백인 앵글로 색슨 개신교도'들로, 정치권 기독교인 세력이다. 그러나 흑인계 그리고 몰몬교 대선 후보들의 등



PRRI는 미전역에서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장으로 이른바 "정치권의 팻팅" 서막이 2012년 대선 경선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백인 개신교도 즉 백인 기독교인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대권 경쟁에서 본선 레이스도 치뤄 보지 못하는 대열로 낙오된 것이다.

이제 PRRI가 발표한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본다:

1. 미국인 중 43%만이 백인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불과 30%만이 백인 개신교인이다. 1976년에는 81% 정도가 백인 기독교인들이었고, 과반수가 넘는 백인들(55%)이 개신교인이었다.
2.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백인 주류교단 교인과 백인 캐톨릭과 함께 감소하고 있다. 2006년에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23%까지 육박했지만, 이제는 17%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
3. 백인 기독교인은 고령화, 비기독교 종교인들은 젊어지고 있다. 무슬림(42%), 힌두(36%), 그리고 불교인들(35%)은 30세 미만, 그러나 백인 복음주의자들(11%), 백인 주류교단 교인(14%)만이 30세 미만이다. 그리고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62%와 백인 주류교단 교인 중 59%는 최소한 50세 이상이다.
4. 캐톨릭은 인종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5년 전에는 87%가 백인이었지만 지금은 55% 정도이고, 36%만이 30세 미만이다.

<3면으로 계속>

세상 문화 싸움서 주도권 잡는 교회공동체 된다!

리더십저널, 리더머교회, 팀 켈러 목사의 "센터 처치" 적 문화 대응 방법 소개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리더머교회를 향한 관심은 지대하다. '도시에서는 복음화가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에 역행하는 이곳을 향한 관심은 세계 각지의 목회자와 선교사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탐방하고 참고하고 리더머교회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와 만나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듣고 싶어 한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의 대답이 바로 다음 아닌 모든 교회가 '복음이 센터'가 되고, 지역이 센터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센터가 돼야 한다고 대답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서 지혜롭게 나가야한다. 켈러 목사는 "센터 처치"로서 어떻게 문화와 대응해왔는지 그 경험과 노하우를 말해준다(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세상문화와 대응, '문화적 경건주의' 와 '영역주권 사상' 반복

(1)중심 추구 (2)시대 변동 인정 (3)내적 확신 따라가 (4)대응 말고 행동



오늘날 교회는 문화와 싸우고 있다. 문화를 이끌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새 문화에 역행하는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다. 교회에서도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세속주의에 반대해 더 내부의 결속을 다질 것인가.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과 미국교회가 이 싸움에 먼저 뛰어어들었고, 유럽은 진작 패배했고, 미국도 갈수록 밀리고 있는 국면이다.

이 싸움 초기엔 문화에 직접 대응하

지 않고, 개인 경건을 강조하면 이길 수 있다는 무관심 무대응의 전략이었다. 이를 문화적 경건주의라 말한다. 그러나 유럽의 패배와 미국의 고전은 이 전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회심하는데 힘을 쏟으면 사회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가정은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p>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p>	<p>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부(DCM-온라인) 프로그램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p>	<p>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p>
---------------------------------------	---	---

월드미션대학교 85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5 adm@wmu.edu 213) 388-1006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5면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7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8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16면
종교개혁 500주년...미국교회 "순전한 신앙고백문" 천명(상)



Imitating Christ Ministries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공동체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줄 알리라" (요13:35)
선교에 앞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개척선교에 부름받은 선교헌신자를 위한

예수님의 선교학교 Jesus School of Missions



일자/ 10월 23-27일(월-금)4박5일

강사/ 김병선 선교사

전 GP훈련원장/인도네시아 선교사



박신욱 선교사

ICTC 디렉터/스페인 선교사

등록/ CAD\$150/부부\$250(USD\$120/부부\$200,침낭/타월 지참)

천국복음을 온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공동체를 열방에 세워나가는 ICM에서 전방개척선교에 부름 받은 선교사후보를 모집합니다. 개인사역을 지양하고, 선교비 모금을 선교사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년간 공동체훈련 후에 여러 교회의 공동파송을 받아 선교지에서 팀선교를 하실 선교헌신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문의/ 604-535-1800 admin.ictc@gmail.com

▶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행6:4)
기도는 성도들에 앞서 교회 지도자들의 사명입니다

목회자/장로/사역자를 위한

2기 예수님의 기도학교 Jesus School of Prayer



일자/ 11월 1-3일(수-금)2박3일

강사/ 이영환 목사 대전한밭제일교회 담임목사

등록/ CAD\$80/부부\$120(USD\$65/부부\$100, 침낭/타월 지참)



이영환 목사님은 1980년 대전 한밭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기도와 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누리는 목회철학으로 대전을 넘어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매일 한밭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목회자세미나에는 전국에서 약 1천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ICTC 훈련원 모습

♥장소/ ICTC 훈련원 12969 Crescent Rd, Surrey, BC, V4P1J8 Canada

부모 과잉보호,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준다!

IB Times, '헬리콥터 양육' 영향 연구 결과 보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와 두고 17세기 영국 시인 로체스터 백작 존 윌모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녀 양육에 관해 여섯 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결국 자식은 여섯을 뒀지만 아무런 방법론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욕심이 섞이면 아이에게 무엇이 '최고'인지 뒤죽박죽되게 되는 경향이 많다. 한마디로, 자제력을 길

러지지만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부모 없이는 혼란을 겪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아이비 타임스(IBM Times)는 부모의 욕심이 담긴 과잉 양육 즉 헬리콥터 양육이 어떻게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말해준다(Signs Of Helicopter Parenting: How Cossetting Children Affects Them).

어떤 공인된 '이론'이 없으니 부모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자녀 양육에 접근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두 부모를 만나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제각각이다. 그러나 특정한 자녀양육 스타일의 분류를 돕는 몇 가지 일반적인 특성이 있다.



이 허용하지 않거나 의타심을 조장했다는 응답자들은 "10대·30대·40대 심지어 60대에 실시한 행복과 전반적인 웰빙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헬리콥터 양육방식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은 피하는 편이 최선일 듯하다고 심리학자와 과학자들은 주장했다.

겉나 박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에선 일관성 있게 건강한 한계선을 그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녀의 개성을 탐색하고

학자들은 수 년 간에 걸쳐 이 같은 스타일을 지적하는 이들을 많이 지어냈다. '방목형 부모(Free-range parents, 자녀에게 많은 자유를 준다)' '제설차 부모(Snowplough parents, 자녀 앞길의 장애물을 모두 치워준

헬리콥터 부모: 자녀에 지나치게 초점 맞추고 자녀 성공/실패에 많은 책임 떠안는 부모 스스로 문제해결법 배우지 못하면 낮은 자존감 두려움으로 우울증, 불안 유발

다)' '타이거 부모(Tiger parents, 자신이 정의하는 성공에 맞춰 자녀를 엄하게 몰아붙인다)' 등.

또 하나의 중요한 분류인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s)'는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용어는 심리학자 포스터 클라인과 교육 컨설턴트 짐 페이가 1990년의 저서 "사랑과 원칙이 있는 자녀교육(Parenting with Love and Logic)"에서 처음 사용했다. '헬리콥터'라는 용어는 부모가 항상 자녀 주위를 '맴돌며'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이는 자녀에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자녀의 경험 특히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는 부모를 아우르는 용어다.

소아과 의사인 겐나 박사는 유타대학 건강학 라디오 프로그램 '헬스 미닛'에 이렇게 말했다. "헬리콥터 양육방식은 어떤 나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유아의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 걸을 때 나지 않고 지키면서 항상 높아 주고 일일이 행동을 가르치며 아이가 혼자 탐구하고 스스로 배우는 시간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

초등학교생의 헬리콥터 부모에 관해서는 이렇게 덧붙였다. "자녀에게 특정 교사를 불려주고, 아이의 친구나 활동을 골라주거

나 숙제나 학업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거의 상당 부분을 대신한다."

심리학자이자 '특권의 대가(The Price of Privilege)'의 저자인 매들린 라비인에 따르면 3가지가 과잉양육으로 간주된다.

△자녀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할 때 △자녀가 거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대신할 때 △부모가 자기 욕심에서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모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의도는 잘못이 아닐지 모르나 "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How to Raise an Adult: Break Free of the Overparenting Trap and Prepare Your Kid for Success)"의 저자 줄리 리스콧-헤임스가 온라인 매체 슬레이트 기사에 썼다.

"우리는 자녀를 격하게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자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 치열한 대학입시 경쟁,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갈구하는 자아실현 욕구가 뒤엉킨 감정에 이끌려 자녀에게 무엇이 '최고'인지에 관한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만다."

이 같은 과보호가 자기 스스로 예견하지 못하는 문제들로부터 어린이나 청소년을 구해줄지 모르지만 이런 유형의 양육방식

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학자와 글이 적지 않다. 리스콧-헤임스는 기사에서 이렇게 썼다.

"아이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여지를 주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자존감이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는 데 따르는 또 다른 문제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실패했을 때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킨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낮은 자신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두 우울증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이 일단의 그룹을 대상으로 1940년대 출생 시점부터 2015년까지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 부모가 사생활을 많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리스콧-헤임스는 "아이들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가 문제에 직면해 있거나 나아가 위기를 맞았을 때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 최상의 결과물 가져온다."

좀 더 부연하자면, 헬리콥터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가 유아 시기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취업할 나이가 되어서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특히 대학 입학에 대해 모든 걸 관여했던 부모는 결국 대학생활, 전공 선택, 대학원, 취업 전선에까지 자녀 대신 직접 나서서 일을 멈추지 못한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종교개혁의 두 원천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아드 폰테스!"(ad fontes) 이 말은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자들에 의해 외쳐지던 말이다. 원뜻은 "원천(源泉)으로!"인데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핵심 원천으로 말하고 있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로 돌아가면 거대한 물줄기 두 개가 발견된다.

첫째는 말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다. 루터는 로마서를 통하여 이신칭의(以信稱義)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마치 계울을 지키고 선을 행함으로 구원 받는다고 생각한 부자 청년처럼 의로워지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의지를 꺾고 적은 양의 음식만을 먹으며 남루한 옷을 입고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일하는 수도사의 삶을 성실히 살았다. 그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던 연옥에서의 행방이 감해진다고 하는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 스칼라 상타라는 28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전설은 전한다. 그 후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서도 비롯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 주어진다 것을 목숨을 걸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원천이다.

요즘 때 아닌 칭의 논쟁으로 불붙어 있다. 목회 칭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방종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영이다. 사실 교회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오용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며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가운데 죄인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 편 강도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한 마디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극적인 장면보다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주장하고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이런 너무나 '상투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교회 강단에서 더욱 자주 선포되어야 한다. 교회는 윤리 공동체이지만 윤리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도덕적, 윤리적인 설교는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대신 수많은 부자 청년을 만들어낼 뿐이다.

두 번째는 존 칼빈에 의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운동이다. 칼빈은 루터보다 30년 정도 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루터의 이신칭의의 복음이 전 유럽에 퍼져서 카톨릭에 대해 저항하는 개신교도들이 속속들이 생기기 시작한 다음이었다. 그는 믿지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이면을 보았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근거로 신행일치(信行一致)를 설교하였다. 실제로 그는 행동으로 스위스 제네바 시에서 이런 꿈을 펼치려 하자 하였다. 당시 제네바는 도박과 음주, 방탕과 사교춤으로 병들어 있었다. 성직자부터 타락한 삶을 살았고 지도자들은 부패해 있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는 가운데 칼빈은 시민들을 교육하며 신앙고백서에 서명하게 하였고 어린이들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쳤다. 그가 시행한 개혁운동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칼빈을 조롱했던 시민들은 후에 그를 쫓아내버렸다. 그러자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질서가 잡히지 않아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시를 선도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그들이 추방했던 칼빈을 다시 불러들여 개혁운동을 하게 했다. 결국 칼빈의 생애 말년에 제네바 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었다. 정치, 경제, 인쇄, 상업, 교육 분야가 발달하고 하나님의 표 나는 축복이 임했다.

로마서에 의해 변화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야고보서에 의해 날마다, 점진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교회 역시 이신칭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하지만 신행일치의 교훈도 외쳐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말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다. 언뜻 보기에 이신칭의와 신행일치는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당연히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는 교회가 반드시 쫓아야 할 두 마리 토끼다. 극심한 가뭄의 때에 약한 짐승들은 원천을 찾는다. 그러나 그 샘에는 물뿐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도 있다. 하지만 너무나 목이 마르면 목숨을 걸고 원천을 찾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이 없어 죽으니 짐승에게 찢겨 죽으나 매 한 가지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체득했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신칭의와 신행일치,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기에 둘 다를 붙잡아야 한다. 아드 폰테스!

항공운항과 남.여,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B.S in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Flight
항공학사 학위 및 국제 조종사 면장과정
전공: 항공운항과, 헬기운항과, 운항관리사, 승무원과정
신청자격: 고졸이상자 및 전문대 혹은 대학 중퇴자, 대학졸업자
전공에 관계없이 편입가능,
국제 항공 조종사 과정에 여학생 환영
항공학과 특징
미국의 타 항공학과와 비교하여 저렴한 수업료
미국연방정부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항공학 학사학위 및 FAA 국제조종사 면장

MBA 경영학석사과정
전공 분야: 글로벌비즈니스, 리더십, 공공정책과 행정,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혹은 동등학력자. 전공무관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학 박사학위
전공: 교육리더십, 조직리더십, 경영리더십
자격: 1) 대학, 대학원석사 학위 이상자 (전공관계없음)
Midwest Degree 학위과정
학사 - 경영학, 항공학, 음악, 신학, 기독교교육학 석사 - MBA - 리더십, MA - 음악, 신학, 영어교육, 상담, 교육, 박사 - D.Min-상담, 교육, 목회신학, 선교, DM - 음악 박사, DL - 리더십학박사 - 교육, 경영, 조직리더십

- 학점, 학위취득 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계절별 세미나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이 가능함.
 - 4) 타 학교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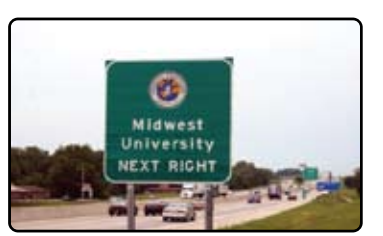
본교소개
본교는 1986 년 세계인재발굴과 양성을 위해 미 중부 도시 St. Louis 에 설립되어 개교 31 주년을 맞은 미국 대학교이며 워싱턴 DC 에 본교, 서울, 방콕, 페루에 Site 를 두고 있고 동문과 재학생은 세계 60 여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교이다.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0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학점과 학위를 인정 받는 미국정규 학위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636) 327-4645, usa@midwest.edu (070) 8690-2662 www.midwest.edu



미국교회, 백인 기독교인 43%로 감소

〈1면에서 계속〉
그러나 히스패닉 계(52%)가 이제는 거의 백인과 동등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5.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세속적' 미국인들이 증가한다.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은 거의 같은 수준인 27%에 머물고 있지만, 58%나 되는 미국인들이 신앙보다는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 심지어는 16%에 달하는 세속적 미국인들은 자신을 "종교적인 사람"으로까지 보고 있다.
6.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을 인접한 나라들에서 온 아시아 미국인들의 종교 프로파일은 다른 인종 그룹과는 양상이 다르다.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비기독교 종교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4% 정도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

7. LGBT 미국인 중 46%는 종교와 상관없다. 이 수치는 미국인 평균 24%에 비하면, 거의 2 배에 가깝다.
8. 민주당에서 백인 기독교인은



소수 세력이다. 10년 전에는 50%였지만, 지금은 29%로 떨어졌다. 특히 젊은 층 즉 18세에서 29세 민주당원 중 기독교인은 불과 14%이다.
9. 공화당에서는 복음주의적 개신교인들이 대세이다. 10년 전과 동일하게 35% 정도가 여전히 공화

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화당원 중 73%는 백인 기독교인들이다.

결론으로, 백인 기독교인의 수적 하락세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건이다. 그러나 교회공동체 안에서는 인종이나 국적과 성별과 언어와 문화 어느 것에도 구애받거나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다양성안에서도 일치이 이뤄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천명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3:28)"라는 그리스도안에서의 일치됨을 증거하는 믿음의 첨병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재플린 임상목회 ⑨

병원은 또 다른 교회입니다



박동서 목사 (Dignity Health 병원 채플린)

병원에서 처음 채플린 인턴으로 훈련을 시작할 때 스태프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던 선배가 해 준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30년을 섬기고 은퇴하신 후 풀타임 전담 채플린으로 이미 10년 가까이 섬기셨습니다. "박 목사님,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지내다 병원에서 원목으로 일하게 되니 여러 가지 낯설고 힘든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기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이 이제부터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의 스태프들과 환자들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인들을 집으로 심방하듯이 환자도 병실로 방문합니다. 교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셨듯이 환자들을 위해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때론 목사님의 심방을 원하지 않거나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을 때가 있어서, 환자들도 질병의 상태나 고통의 정도에 따라 또는 종교적 성향 때문에 병원 채플린의 방문을 거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려나온 조언은 모두 마음에 와 닿았고 긴장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강의실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을 방문하며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무실 직원 등의 스태프들은 교회의 동료 사역자거나 행정 직원들로 생각하면 되었습니다. 채플린들은 단지 입원 환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모든 스태프들의 영적 필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영적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활동을 계속하다보니 의사와 간호사들일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개인적으로도 감정적 기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환자의 진료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채플린들은 일대일로 스태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의 짐을 털어주도록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요청에 따라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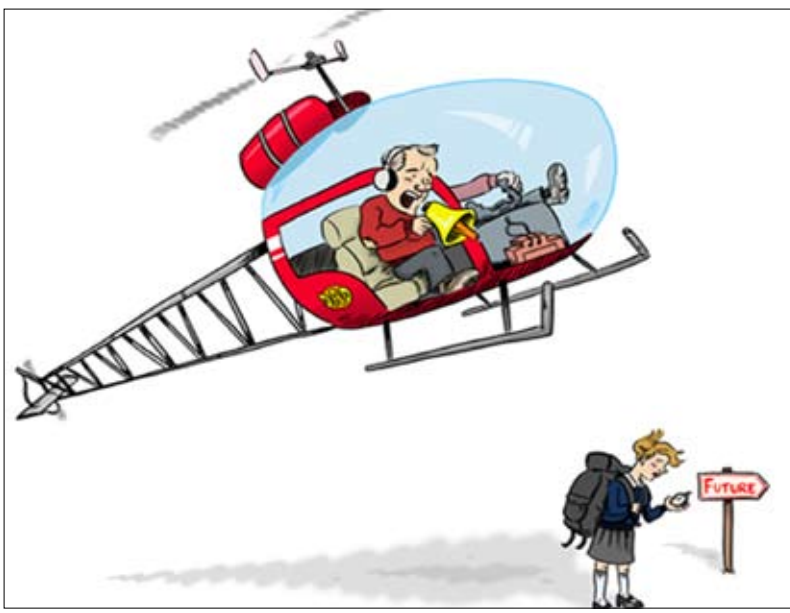
갓 태어난 신생아의 세례를 부탁받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환자의 장례식을 거행해달라는 가족들의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환자가 기독교 신자였지만 타주에서 오래전 출석하던 교회에 부탁할 수도 없어 고인의 뜻에 따라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인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후 유골만 자녀나 친지들이 갖고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혼자 양로원에서 사시다 돌아가시는 무연고 환자도 많아서 카운티나 시에서 무료로 화장이나 장례를 하기도 합니다. 장기 입원 환자들로부터는 선찬식을 해줄 수 있는냐는 요청도 많이 받습니다. 개인용 선찬기 세트를 늘 비치해 두었다가 사용합니다. 30대의 말기암 환자가 사랑하는 연인과 병상 결혼을 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는데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가운데 병실이나 병원 채플에서 채플린이 주례로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을 인도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인도한 결혼 예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혼례식이었습니다. 그 환자는 일주일 후에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한국에 계신 저의 장인, 장모님도 건강이 크게 악화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그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던 분의 병실 방문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고 결국 병원에서 두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목회자인데도 교회를 다니던 친지로 인해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소개해드린 교회 출석도 거부하시며 오랜 시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시다가, 병실 문을 두드린 연로하신 채플린에게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세례증을 펼치고 활짝 웃으시며 찍은 사진을 보내 주셔서 아내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병원은 정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하나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세상 문화 싸움서 주도권 잡는 교회공동체 된다

〈1면에서 계속〉
오히려 문화적 경건주의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회 전반의 기본적인 복음 이해도가 떨어지고, 적대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교회가 문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거나, 문화를 분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복잡한 문화사회 속에 무분별하게 동화돼 버린다.
문화적 경건주의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문화에 적극 참여하며 변혁할 것을 요구하는 "영역주권" 사상이 등장했다. 네덜란드의 정치가이자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사상은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서 곧 기독교 사회 전반으로 퍼져갔다. 이 사상은 곧 미국 기독교의 교육커리큘럼이 됐고 한동안 좋은 기초를 닦았다.

임은 사실 문화에 대응하는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경건주의적 움직임은 초대교회와 교부시대, 중세교회와 종교개혁이



후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다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회 전체를 변혁하려는 교회의 시도가 등장했다.
반복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지지부진한 문화싸움과 난립하는 행동

지침 속에, 교회는 어떻게 그 사이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문화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의 통치를 이룰 것인가?

첫째는 중심을 추구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견해의 핵심적 통찰을

한다.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요동하는 것만큼이나, 시대의 정황도 요동한다. 나의 관점이나 입장이 때로는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마치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복장의 변화로 비유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는 옷이라 할지라도, 이 계절에 가장 적합한 옷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셋째로 무엇보다 내적 확신을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교회가 주변사회의 문화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내적 확신을 주신다. 은혜아래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맞지 않는 남의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도 없다. 말씀으로 인도해 오신 대로 확신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 문화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은 늦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부적인 행동지침이 있다:

- 1)오만을 피하고 2)비난하지 말고 3)좌절하지 말고 4)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 과잉보호,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 준다

〈2면에서 계속〉
부모는 자녀를 늘 옆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자녀의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자녀 대신 생각하고 결정하고, 실수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며, 때로는 자식의 온갖 시중을 다 들어준다. 부모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과도한 경계망을 펼치는 바람에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성년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경험과 자유로운 삶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일부는 잊어버린) 채 말이다.
물론 헬리콥터 부모의 행태도 자녀를 도우려는 선의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치고 비뚤어진 간섭은 부모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과

정'을 제대로 겪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자녀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방법, 어떤 가능성을 이뤄내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배우지 못한다. 이들은 또 넘어져볼 기회나 다시 일어설 기회도 갖지 못하고, 사실상 그들 자신이 이뤄내지 않은 일로 성취감을 느끼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고 믿게 된다. 또한 이들에게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릴 완충장치도 없다.

놀이와 자유도 없다.

결국 어린 자녀들의 안전을 신경쓰고 학업 성취도에 초점을 맞추며 자부심을 키워 주고, 나아가 모든 일에 일일이 관심이 기울이며 점검하는 식의 헬리콥터 양육 방식이, 유년기와 학창시절을 겪으며 자녀들이 자아를 형성하고, 그들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과잉보호와 과잉양육이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故 최광명 선교사 천국환송 예배

대한민국 최초의 의사선교사, 남편 최찬영 목사와 함께 평생 선교에 헌신하신 최광명 선교사께서 2017년 9월 16일 오전 7시 10분에 향년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소명에 순종하시면서 겸손, 섬김, 사랑, 그리고 헌신의 본이 되신 선교사님의 향기로운 일생을 회고하며 천국환송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장례일정

- 입 관 예 배 : 또감사선교교회 1440 N. Spring St, Los Angeles, CA 90012
- 일 시 : 9월 22일 2017년 (금) 오후 6시
- 집례 : 최경옥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

장례식 장소 : 6300 Forest Lawn Dr. Los Angeles, CA 90068 / 1800-204-3131

- 천국환송예배 : 9월 23일 2017년 오후 5시 (같은장소)
- 집례 : 최경옥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
- 하 관 예 배 : 9월 23일 2017년 오후 6시 (같은 장소)
- 집례 : 최경옥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

연락처

- 또감사선교교회 : 323.225.9111
- 한인세계선교사회 (KWMF) 미주지부 : 714.350.6957

유가족

- 남편 : 최찬영 선교사
- 장남 : Samuel
- 장녀 : Helen
- 차녀 : Miran
- 차남 : Daniel
- 자부 : Kathryn
- 사위 : John
- 사위 : Dan
- 자부 : Kanako
- 손자 : Christina, Andrew
- 손자 : Steven, Jeffrey
- 손자 : Mija, Derrick, Emily

*복장은 검은색과 검은색 넥타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말씀에 매료된 사람

라스베가스에 와서 살면서 종종 우리 한인 중에도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볼 때가 있다. 더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도박에 빠져서 그 인격이 황폐해지고 가정을 파괴된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다. 원래 중독이란 말은 자신이 선택한 외적인 조건을 가까이 하다가 또 계속 반복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끌려 들어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인격에 기능장애가 일어나서 자신의 판단과 능력, 기능을 다 상실하게 된 비참한 증상을 말한다. 물론 도박중독뿐 아니라 알코올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다.

알코올중독, 아시는 대로 술은 사람이 마시는 거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이다. 뭐 어

떤 이유에 의해서이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마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사람의 인격은 없어지는 것이다. 한번 중독되면 자기도 이래선 안 되겠다고 가슴을 치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담배도 마찬가지이다. 아니 세상에 담배 그거 안 피우면 그만이다. 끊은 사람들도 많지 않은가? 그런데 이걸 끊지 못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 비행장에 가보면 한쪽 구석에 유리로 만든 방이 있는데 거기를 앉아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꼭 원숭이들 같다. 그걸 보면서, 저 불쌍한

사람들... 어쩌면 좋은가... 늘 그런 생각을 한다. 아니 하찮은 담배의 노예가 돼서 사회적인 구박을 받으면서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도대체 사람이 초라하기 그지없지 않는가?

육체의 욕망과 습관에 끌려 사는 사람들. 굳이 술, 담배, 도박뿐이겠는가? 별 것도 아닌 욕망에 끌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 이걸 생리학적으로 인간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이성과 지식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 이걸 철학적 인간이다. 자기 판단, 별 것도 아닌 자기의 아는 지식, 그게 번번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판단, 자기 지식에 매여서 헤어지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자기 도덕률에 노예가 된 사람도 있다. 자기가 지켜온 패턴, 자기 생활, 양심에 노예가 된 경우이다. 자기 도덕률에 노예가 된 도덕적 인간이다.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쯤 되어서 뭐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을 볼 때도 있다. 이것 또한 비참한 것이다.

가장 성공적인 생이란 사랑하며 사는 거다. 사랑은 자유이다. 사랑에 미치는 것은 미처도 관찮은 거

다. 미칠 바에는 사랑에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Napoleon Hill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께서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면밀히 연구하면서 세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가 집중하는 것이다. 한번 선택하고는 다른 걸 다 배제하며 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안목이다. 항상 긍정적인 안목을 지니고 있다. 적극적인 사고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머리,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 거기에 노예가 되면 그것 또한 구제 불능이다.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고 사는 것이다. 성취감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경우가 없다. 가졌으면 가지는 순간 더 가지려고 하고, 됐으면 먼 순간부터 더 큰 것을 바라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이다. 그저 지금 이 대로 만족하고 행복해 할 줄 알아야 한다. 그저 아침에 눈을 떴으니 행복해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당신을 볼 수 있으니 행복해하고, 오늘도 이른 아침 교회를 향해 나올 수 있으니 행복해하고, 이 작은 성취감을 즐길 줄 아는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너무 큰 욕망에 불붙리는 것 좋지 않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감사로 즐길 줄 아는 생활, 이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생활 스타일이더라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법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묵상한다는 것이다.

지난 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 거기 통곡의 벽에 유대인들이 많이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데 그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커다란 석조 회당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팎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앉아서 읽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 놓기는 했는데 눈을 감은 채로 입술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중얼, 중얼, 중얼, 중얼, 하고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묵상이다. 성경은 펴놓고도 눈을 감고 성경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묵상(Meditation)이 아주 중요한 거다. 오늘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나 묵상이 없다. 묵상이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있는 거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묵상하

는 것이다. 사랑하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인격으로 받는 것이다. 이 성경을 읽는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거다. 이게 묵상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책을 펴는 순간 이젠 텍스트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편지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 그 종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자 Karl Barth는 그의 "말씀론"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자체다" 역사 속에서 이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씀은 신비롭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가는데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난다. 이 신비로운 능력을 아는가?, 이것을 체험할 때 말씀에 매료되는 것이다.

revpetergang@hotmail.com

푸/른/초/장

오세훈 목사
(세계소망교회)



우리가 삶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좁은 길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했는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아닙니다.

고전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지만 주님이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겨낸 시험입니다. 선진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시는데, 왜 우리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합

니다. 이것이 오늘 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입니다. 편이상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을 만날 때의 자세

2절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큰일 났다" 라고 떨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진 것

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시련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쁘게 여길 때 그 시험을 우리가 무난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더 귀중하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중하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귀중하지 않습니다.

한 것, 별 볼일 없는 것을 가지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을 구하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둘째로,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

니다.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내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만들어 줄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서 1장 2-4절)

첫째, 시험을 만날 때의 자세

2절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종류의 시험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로 인한 시험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났다고 "큰일 났다" 라고 떨고 있으면 이미 그것은 진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시

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아라."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해집

니다.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까?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조금만 잘된다 싶으면 기뻐하면서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인내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심을 만들어 줄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14면으로 계속)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두 아들을 가진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 아들 중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결과 마침내 그 많은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다. 기근이 시작된 것이다. 돈이 떨어졌고, 신발, 양복 옷도 다 떨어졌다. 찾아갈 곳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되었는데, 후에는 그 형편도 점점 악화되어서 그것마저 마음껏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오늘날 주변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취하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종국

없으니까 신경질은 나고, 그래서 되풀이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도 그럴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람도 사람됨을 포기한 채 짐승처럼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더럽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에 개 돼지가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를 잘 모를 때 개 밥을 사먹었다고 하는 분들이다. 개 밥, 고양이 짐승 밥을 사서 먹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 몰라서 그렇게 먹은 것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결코 짐승 밥을 먹을 이유가 없다. 짐승과 동격처럼 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 때문에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스스로를 동물로 전락시키는가? 어쩌서 그렇게 된 것인가? 사람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되더라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사

어쩌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 사람이 타락하면, 그 증거가 먹고 사는 것에서 먼저 나타남을 본다. 사람이 타락하면 더러운 음식을 좋아하게 된다. 먹는 것을 보면 타락한 본성이 드러남을 본다. 사람들의 음식 문화 속에 그 사상이 들어 있다. 입는 옷에도 그 사람의 사상이 숨어있다. 옷은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데,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몸에 그림을 그리고 수염도 정리 안되고, 걸음걸이나 자세도 함께 무너져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에스터서를 보라. 아하수어로 왕이 127개의 주를 손에 쥐고 잔치를 매일 벌였다. 나라도 통일했고, 주변 나라를 빼앗았으니, 얼마나 그 권세가 막강하겠는가? 그러나 매일 술타령하고 먹고 마셨던 것이다. 그런데 왕의 참모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다가,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의 패션쇼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자 왕의 참모들이 와스디를 이 자리에 불러내

그러면 기다려 줄 수 있다.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사람이 돼지가 먹는 열매,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이것을 놓고 갈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단해야 한다. 먹을 수 없게 되면, 후에는 개처럼 거리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된다. 이처럼 아버지를 떠나면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고 있는 것은 분명 복된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사상의 절대화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고참들이 술을 안 마신다고 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항복하지 않는다. 그것이 쥐엄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려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때려도 먹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모여서 도박을 하자고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의 모 권사입니다. 과거에 교회의 어느 아는 교우에게 500불을 빌리고는 제 불찰로 인해 갚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담이 되어 지금까지도 저는 빚을 갚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버뱅크에서 안

A: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과거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그가 죽을 때 자기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아무게 집에서 닭 한 마리를 외상으로 가져왔는데 아직 갚지 못했으니 네가 대신 좀 갚아 달라고 이 한마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진 것은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남에게 어려운 때 돈을 빌리고도 빚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

빚진 자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현금하도록

스도의 이름에도 욕이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돈 때 먹고...권사가 돈을 때 먹고 완전히 양심불량이구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과거 1984년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는 189년 전의 나폴레옹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습니다. 이것이 해외토크에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이고 하면,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스위스의 한마을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부대가 잠시 머무는 동안에 동네사람들에게 빌려간 냄비와 주전자 180개 별채한 나무가 2,372그루, 정용당한 마을 사람들의 품삯, 노새의 값, 이런 것들을 다 빚지고서는 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곧 모든 것을 결제할 것이고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후에 사정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189년 후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나폴레옹의 이 빚을 갚았는데 이자를 다 계산해보니까 5,000억 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양보를 해서 이자는 빼고 원금 15억만 갚았다는 것입니다.

권사님, 현재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찾으면 정중히 사과하고 빌린 돈 500불에 이자가 쳐서 피해보상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액수의 현금을 사죄하는 마음과 함께 드리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사람이 다시 찾아지면 다시 빚을 갚겠다고 회개하며 현금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쥐엄 열매를 먹고사는 세상속의 그리스도인

-먹는 것 입는 것에도 사상이 숨어 있음

에는 쥐엄 열매도 겨우 먹는 모습이 되었음을 본다. 쥐엄 열매를 먹으면 서로 아버지를 찾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완고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을 본다.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 답을 찾기 위해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본다.

존귀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면

쥐엄 열매는 아카시아 나무 껍데 속한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일종인데 소, 개, 돼지의 밥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돼지의 원래 식성은 풀과 약초를 먹고 사는 참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동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상상하기 어렵지만 돼지가 더러운 곳에 살도록 방치되면서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점차 더러워진 곳에서 스스로가 익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돼지는 더러우면 옮겨가서 사는 데 집돼지는 옮겨 살 수

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한다. 죄인이 된 후에는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 아버지 집을 떠나 있어야 할 곳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인생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 사람답게 못사는 사람들이 많음을 본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못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알던 모르던 그는 지금 쥐엄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와 다를 바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존귀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하였는데, 먹고 사는 삶의 형편을 통해 영혼의 좌소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타락한 사람의 음식문화

먹을 것이 넉넉한 부잣집 아들이

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와스디가 그 더러운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거절한다. 그래서 왕의 말을 거역함을 이유로 와스디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어 쫓아 버리는 것을 본다.

식탁이 더러워지면, 그것은 그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더러워졌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터러같이 먹지 말아야하고, 더러운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 자식들 앞에서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부모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면 안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돼지들이나 우상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나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핑계에 불과할 뿐 끊어버려야 한다. 숨어서 피우는 담배를 왜, 피우대는가?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괜찮다. 가능성이 있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쥐엄 열매라는 것을 알면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만 주변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편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으면 삶은 너무 편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안에 견고하여질 때, 고난의 여정은 있을 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쟁이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려니와 힘든 것이다. 할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사상의 절대화이다.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7면으로 계속>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익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봉쿠(BUNGKU)



인도네시아는 네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무슬림인 300개 이상의 독특한 집단으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의 남동쪽에 위치,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호주, 유럽, 아시아 주요 대륙 사이에 위치한 중요한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 양과 인도양사이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17,400봉쿠는 술라웨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은 툴라키와 모리에 가까운 이웃이다. 특별히 봉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습관과 문화는 그들의 가까운 이웃과 매우 비슷할 거라고 추측된다.

그들의 역사가 크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봉쿠는 거의 400년 동안 그들의 현재 위치를 유지해

삶의 모습

술라웨시는 약 3,500마일의 해안선을 따라 있는 섬이다. 주로 깊은 만으로 분리된 4개의 반도로 이루어졌는데, 남쪽으로 뻗은 2개와 북동쪽으로 뻗은 2개다. 섬의 남쪽 부분에는 술라웨시의 최고봉이 있는데, 롬포바탕산이라고 해발 9,419피트의 활동을 멈춘 화산이다. 이 지역의 기후가 열대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와 바다에 인접한 것으로 약간 완화됐다.

봉쿠에서는 "스위덴스(화전방식으로 깨끗해진 땅)"에서 자란 옥수수 가 주요 작물이다. 그러나 고구마, 사탕수수, 채소, 담배 그리고 커피가 또한 자란다. 개척자 사이에 집들이 흩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주 위에 세운다. 집들은 보통 풀을 써서 만들고, 매우 높은 지붕이 있다.

술라웨시에서 뚜렷한 사회계급은 여전히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꽤 강경하여 귀족의 상위 그룹, 하위 그룹 그리고 서민들이다. 각 계급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습과 전통에 따라, 각자의 행동규범이 있다. 구역은 전형적으로 마을의 세력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땅을 사용할 권리는 마을 의회가 운영한다. 그러나 의회가 모든 땅의 궁극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봉쿠의 결혼관습은 약혼할 때 신부의 집에 지불을 해야 하고, 결혼할 때 시한다. 신부의 가격은 젊은 남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결혼 전에 남자는 그의 장차 처가식구들과 시합적인 기간을 갖도록 요구받는다. 그리고 이 요구는 높은 빈도의 가출을 유발시

킨다. 과거에는 노예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함께 살 수는 있었지만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높은 신분의 여자들은 서민들과 결혼하지 않았다. "일부다처"가 상류계급에서는 일반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8백만명 이상의 농부들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덜 개발된 섬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고, 집과 다른 것들도 보조해 준다.

신앙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우세한 종교는 이슬람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믿고 있다. 14세기 전에는 섬들 사이에 힌두교가 넓게 퍼졌으나 지금은 단지 발리섬에서만 소수 믿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약 14%가 크리스천이고 주로 개신교도들이며 많은 중국인들은 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애니미즘(인간이 아닌 것도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부족들이 믿고 있다.

봉쿠는 99.9%가 수니파 모슬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믿음은 여전히 중요하며 특별히 약령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 봉쿠 사이에 기독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봉쿠는 자신들의 언어로 기독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 그들 사이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가 없다. 성경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다른 자료들이 매우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은 지금 '온라인 교회' 논쟁 중

'전 세계 어디서든 예배를 드린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는 미국 라이프 교회(Life Church)는 인터넷 홈페이지 '라이프교회 온라인(life.church/online)'을 운영하고 있다. 라이프교회 온라인은 예배 실황과 사역자들과의 신앙상담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 접속 중인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나눔도 할 수 있다.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만 제외하면 실제 교회에 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온라인 교회'가 '지상의 교회'를 대체하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 SNS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온라인 교회 '전도사'로서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는 지난 6월 한 행사에서 "페이스북이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업을 토론했다. 라이프교회 온라인은 이런 주장이 망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신자임에도 주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교회 대체론'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실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반박하는 주장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기독교인론 크리스체너티튜데이는 12일 '온라인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라는 제목의 칼 베이티스(코너스톤크리스천칼로소 교회) 목사의 글을 실었다. 베이티스 목사는 "온라인 교회도 교회는 맞지만 온라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교인들은 실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기독교 웹 사이트를 찾아다니거나 찬양 영상을 보는 것, 기독교 블로그에 달린 댓글을 읽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에게 큰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티스 목사는 예수의 삶을 통해 실제 교회의 중요성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해야 한다'고 했다.

이라크 의회, 쿠르드족 독립 반대 의결

세계 최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나라 '쿠르디스탄'(쿠르드족이 정한 독립국가 명칭)은 여전히 요원한 꿈일까. 이라크 의회가 오는 25일 예정됐던 쿠르드족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12일 가결하면서 쿠르드족 주권국가 건설이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이라크 전체 인구의 15-20%인 쿠르드족은 숙원이던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쿠르드족자치정부(KRG) 주도도 지난 6월부터 주민투표를 추진해왔다. 1992년 수립된 KRG는 이라크 북부 3개 주에 대한 자치권을 갖고 있다.

쿠르드족은 애초 이번 분리독립 투표에서 찬성이 나오면 이라크 정부와 협상을 벌여 독립국가 수립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유권자에 KRG 자치지역뿐 아니라 인근의 키르쿠크주와 니네베주에 사는 쿠르드계 주민도 포함시키면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계획은 터키와 이란, 시리아 등에서도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 국가는 쿠르드족의 연쇄 분리운동과 자국 내 소수민족의 동요를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퇴치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내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쿠르드족 분리독립에

반색을 표해 왔다.

쿠르드족 입장에서 이런 대외 기류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IS 적결의 일등공신인 KRG 군사조직 폐쇄 메르카에 수많은 쿠르드 청년들이 뛰어든 것도 국가 수립 때문이었다고 외교 전문지 포인터페어스는 전했다.

최대 4000만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족은 고유 언어와 민족적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국가 없이 중동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 왔다.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서 12세기까지 독립된 왕국을 유지했던 쿠르드족은 16세기 오스만 제국에 점령된 이래 줄곧 독립투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1차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분할하면서 인근 국가들에 나뉘어 복속됐다. 그러나 쿠르드족 자치정부가 수립된 곳도 이라크가 유일하다.

영국, 동성혼 허용 후 다자언어·대리모 문제 생겨

영국 런던에서 북동쪽으로 75km 떨어진 케임브리지 S대. 11일 오후 서늘한 날씨에 굵은 빗방울까지 떨어지 한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울버포스카 데미에 참여한 반동성애 운동가 60여명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울버포스카데미는 미국의 트루스익스체인지 콘퍼런스, 한국의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와 함께 세계 3대 동성애 예방 콘퍼런스로 손꼽힌다. 미국(2003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고 다음은 영국(2010년) 한국(2017년)이다.

'포문'은 아카데미 디렉터인 조 부트 목사가 열었다. 그는 "기독교 문화와 비기독교 문화는 음악 영화 교육 결혼제도 등 '스트러처(구조)'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두 문화의 차이는 '디렉션(방향)', 즉 해당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적인 결혼제도를 뒤엎어 재정의하려는 위기 상황인데, 다시 하나하나의 형상으로 마지막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강력한 문화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4박5일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콘퍼런스는 크리스천 콘선(Christian concern)이 주최한다. 이 단체 대표는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로, '정부 법 미디어 비즈니스 등 공적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主權)을 전한다'는 목적 아래 소송대리, 교육 등에 주력하고 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 사회에선 50년 전부터 치열한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핵심 어젠다는 낙태와 동성애, 이슬람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선 크리스천이 신념에 따라 동성애를 비판했다가 실직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초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성 중립 유니폼을 착용하고 성 중립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윌리엄스는 "공교육 현장에서 잘못된 성교육으로 자녀들이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엔 14살짜리 트랜스젠더가 나왔다"면서 "이런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 정책을 공공 영역에 꾸준히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최 측은 한국 참가자 9명을 위해 특별히 분과토론 시간을 배려해줬다. 영국 성공회 주교 출신인 마이클 나자르 알리 옥스퍼드트레이닝센터 대표는 "한국에서 동성결혼 문제가 뿔리면 그다음은 동성애자의 입양, 다자 연애, 대리모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모두 거친 영국에선 트랜스젠더 여성이 출산 후 다시 남성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녀는 자신을 낳은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헷갈리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문화전쟁을 치르고 나니 일부다처제의 이슬람과 다자 연애를 추구하는 동성애 진영이 정치적으로 연대했음을 알게 됐다"면서 "잘못된 교육이 이런 상황을 조래한 만큼 한국도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카데미에선 '법적 소송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사 장소와 참가자 발언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걸 자제해 달라'는 광고가 나왔다. 2006년 통과된 평등법

(Equality Act) 때문인데,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8차레나 통과시키려 했던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다.

과학 교사인 영국인 A씨(22-여)는 "학교에서 동성애의 실재를 밝히려려고 한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콘퍼런스에 참가했다"면서 "힘겨운 과정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북한의 두 얼굴...앞에선 적개심 뒤론...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면으로는 미국과 접촉을 통해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14일 '미국과 중동세력들은 우리 천만군민의 서리발치는 멸적의 기상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극악한 제재 결의 조항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핵과 경제) 병진적 한길로만 나아가려는 불변 의지를 더욱 억척같이 버리게 한다"고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비단 성명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무성의 최강일 미국국 부국장은 지난 11~13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동북아 안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양측은 6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13일 최 부국장이 스위스에서 나마스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참사관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도 리아노 보스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촉구했다. 라브코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정치적인 의지와 단호함이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는 동료 국가들과 협조해 문제 해결 모델을 제안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도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북핵 해법에 있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낙관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동성결혼 합법화 '전쟁 중'

호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놓고 국민 의사를 묻는 우편투표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 벌써 갖가지 잡음이 들려오고 있다.



이번 우편투표는 지난 12일 투표용지의 우편발송으로 시작돼 오는 11월 7일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투표 결과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찬성표가 많을 경우 연방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가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빅토리아주의 한 장로교 교회는 예비신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 의견을 피력한 뒤 오는 11월 예정된 그녀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호주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이 목사는 편지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당신의 주장은 예수의 가르침과 함께 호주 장로교와 나 자신의 성서에 입각한 입장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결혼식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주위에 이미 결혼식 초대장을 보낸 예비신부는 목사의 급작스러운 거부에 부랴부랴 다른 예식 장소를 찾아 나섰고, 간신히 일반 예식장을 찾을 수 있었다. 예비신부는 "동성애자 친구들도 결혼식장에 올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더는 다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동성결혼 지지자인 맬컴 턴볼 총리는 이 같은 갈등에 대해 "내가 다니는 가톨릭 성당은 전에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의 주례를 서지 않는다"며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브리즈번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19살 청년이 동성결혼 지지 깃발을 훼손하는 한 남성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사건은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가 잘 아는 청년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폭행으로 얼굴에 피가 흐른 모습의 사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호주 의회는 찬반 세력 간 갈등이 총들로 번진 것을 우려, 지난 13일 우편투표 기간 중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협박하거나 거짓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에 최대 1만2천600호주달러(1천140만 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에 대해 약 60-70%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턴볼 총리가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가운데 보수파의 거물인 존 하워드 전 총리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현 정부를 거칠게 비난하고 나섰다.

턴볼 총리의 전임자인 토니 애벗도 동성결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동성애자인 국적항공사 퀴안타의 앨런 조이스 최고경영자(CEO)가 100만 호주달러(9억 원)를 기부하는 등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기업과 기업인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카고 사상 처음 히스패닉계가 흑인 인구 추월

미 대륙 내부에 위치한 미국의 3대 도시 시카고에서 히스패닉계 인구가 처음으로 아프리카계 인구를 추월하며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인종 그룹을 형성하게 됐다고 시카고 선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선타임스는 미국 센서스국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인용, 시카고 시의 히스패닉계 인구가 2015년 78만6천 명에서 2016년 80만3천 명으로 1만7천여 명 더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 270만여 명 가운데 29.7%를 차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2016년 흑인 인구는 2015년보다 4만2천 명 줄어든 79만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3%에 그쳤다. 비(非)히스패닉계 순수 백인 인구는 88만2천여 명으로 전체의 32.6%였다. 아시아계 통계는 이번 자료에서 빠져있으나 2010년 기준 5.5%로 기록됐었다.

도시계획 연구·평가기관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플래닝 카운슬(MPC)'의 앨든 루리 연구원은 2000년대 들면서 미국 전체 히스패닉계 인구가 흑인 인구를 넘어선 사실을 상기하며 "시카고에서도 언젠가 유사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지만, 그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에서 히스패닉계 인구가 흑인을 제치고 최대 소수 인종으로 부상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시카고 흑인 인구가 8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최소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루리 연구원은 "시카고 히스패닉계는 도시 남서부 히스패닉계 밀집지역을 경제적 구심점 삼아 사업 개발과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도시 남부와 서부에 고립된 흑인 커뮤니티는 정반대 과정을 거쳤다"며 "최근 들어 더 악화된 총기폭력 사태가 흑인 인구 급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사이 시카고 흑인 인구 감소 규모는 18만여 명, 한 해 평균 1만8천 명이나, 2015년과 2016년 사이 감소 규모는 이 숫자의 2.5배에 달한다. 루리 연구원은 "이번 통계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10-20년쯤 후엔 시카고도 히스패닉계가 최대 인구를 형성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35. 이창성

이창성은 진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 1916년 9월 30일 그는 상항에 도착했다. 다음 달 27일 하오 8시에 상항 한인예배당에서 샌프란시스코학생회 회장 황지남이 제1차 개회식을 거행하여 친목의 뜻을 보였는데 사회 임정구 목사와 북미 총회장 강영소가 있는데서 내빈 연설자로 이창성은 최진하와 김경의와 함께 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공부하러 온 이창성은 민족 사랑에 팔을 걷었다. 1917년 1월 그가 대한인 국민회에 상항지방회에 가입하더니 그 해 맨타카 지방회 서기를 역임하는가 하면, 그 해 8월 9일자 신한민보에 '가옥 은행채 보상에 대하여'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명동학교 기부, 국민회의무금 납부, 고 김영수씨 장비의 연 참여 그리고 신 한민보 식자 기계 구입비 기증으로 기증이 이어졌다.

이창성은 1919년 진주에 거주하던 그의 부인이 50여명의 부인과 함께 '대한독립 여사대'를 조직하고, 1919년 3월 18일에 선봉에서 대한 국기를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일경에 의해 평생 병자가 되었으나, 국가 독립을 위하여 병자됨을 기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 해 9월 그가 귀국하여 부인의 출육을 본 후 1920년 3월 21일에 상항에 도착했다.

제도미한 그는 1920년 6월 1일자 신한민보에 기고한 '한국사정을 나의 문견대로'라는 기고문을

통해 내지 정황이 억압과 압박으로 민중의 독립을 위한 결심과 단합을 강조했다. 이후 그는 국민의무금, 신한민보 간행 보조금, 간도참상 구제금 그리고 특별의 교비 등 기부를 쉬지 않았다.

이창성이 학교에 등록하기는 1921년 가을이었다. 상항과 오를랜드에서 거주하던 이창성은 감리교회 감독 보스 박사의 추천으로 조지아 주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1836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이창성은 다년간 라성에 거주하였다. 그는 1927년 3월 21일 저녁 7시 반에 라성 지방회 회장 이 암의 주택에서 개최한 삼일절 행사에 참석한 50여명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 해 10월 이창성은 박일우와 함께 귀국한다. 그는 연희전문대학에서 3년간 가르쳤고, 종교 사업에도 종사했다.

1928년 7월 8일 오후 8시 정동교회에서 '야곱의 석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그가 다음 해 12월 15일 오후 7시 예배에서 '단결의 정신'으로 설교했다. 1930년 7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 중서부 제8회 학생회 모임에 2불을 기부할 정도로 그는 유학생에



이창성 목사

고 한다.

상황

이창성은 1932년 10월 20일 경성을 출발한 후 일본 고베에서 '아사마 마루' 선박을 이용하여 상항에 도착했다. 12월 24일 주일 저녁 7시에 성탄 축하식에서 개회사에 이어 이창성이 기도 순서를 맡았던 후 상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1933년에는 삼일절 기념식에서 개회 기도를 담당하였는데 좌석의 연속한 공기를 더욱 엄정하게 하였고, 김동우, 양주은, 송근주와 함께 가수 셀나스 중앙정부 감옥에 있는 흥중만을 방문하고 금일봉과 신한민보를 전달했다. 이렇듯 그는 기도와 설교로 순회전도자로 활동하였다.

다른 한편 그는 강연과 기고 그리고 기부를 통하여 겨레 사랑과 독립운동 등 문화 명령에 집중한다. 1934년 2월 그는 상항 국민회 창립 제25주년 기념식에서 기념 연설을 담당했다. 그 해 9월에는 상해 지방회 주최 국지기념일에서 '만국 역사를 진술하니보단 혁명운동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내지 수재 동정금을 기부했다. 그 해 12월 6일에는 "민족 영웅 채정재 장군 환영

으로부터 가정, 단체,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소 사업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삼가 잘 예비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기자는 이에 덧붙여 멈추노라고 적었다. 그 해 그는 학생운동과 국민회 의무금을 기부했다.

시카고

1935년 11월 서울로 돌아온 이창성은 다음달 22일 서울 중앙교회, 이듬해 2월 23일 오전 11시 예배에는 "회개와 헌신"으로 설교한다.

그런데 1936년 4월 9일에 태양환 선편으로 그는 상항에 도착한다. 동양물산의 행사차로 시카고에 근거를 두고 뉴욕 등 동방과 남방으로 행상하였고 남가주 등지와 솔트레이크 방면도 찾았다.

1937년 6월 상항교회 예배당 앞 도로를 고치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2원을 연조하면서, 의무금 납부, 상항국어강습소 보조, 국민회 총회관에 고래기를 박스 그리고 잡지철 등 가구 헌물이 이어진다.

"경험상으로 얻은 나의 종교관"

이창성은 1937년 7월 1일과 29일에 걸쳐 두 번 자신이 쓴 "경험

은 아니오니 그 점만은 깊이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부하면서 문서전도를 하고 있었다.

라성한인기독교회

1932년에 미국 나성의 조선인 감리교회 전도사로 접근한다는 광고가 있는 지 7년이 된 1939년 4월 이창성은 라성한인기독교회의 순행전도목사로 취임한다. 그 달 9일 오전 라성 시내 백인교회의 갈보리교회에서 이창성을 기독교회 목사로 안수하였다. 이날 송현영은 부목사로 취임했다. 본교회는 장래 발전을 위하여 위의 두 목사를 청빙하였는데 취임만찬회는 성대했다.

본 교회는 한인기숙사 곧 양로원 사업을 병행했는데 방마다 거의 가사화덕이 있어 자취할 수 있었다. 20간 방에 기숙하는 17명의 노인을 모시고, 김중수 목사의 인도로 피로연을 열었다. 이날 이창성 목사는 감상담을 소개했고, 양로원에 10월 50전을 기증했다.

라성한인기독교회는 1936년 9월 노스 올리브 스트리트에 있는 건물에서 황 휴, 송창균, 안경호, 김순권, 전 진, 현승걸, 김재신, 송현영 등 동지회 회원과 함께 김중수 목사의 인도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다.

부인전도회

여러 해 폐지되었던 라성한인기독교회 부인전도회가 1939년 11월 30일 오후 8시에 본 교회 예배당에서 동회 회장 전유선의 사회 하에 전도회 복설예식을 거행했다. 이창성 목사는 이날 이병익, 이창성, 김은송과 함께 장정계 정위원으로 선정된다. 복설예식 후 부인전도회는 냉면을 만들어 양로원 노인을 대접하였고, 이에 고맙다는 전병은 의사의 답사가 있었다. 이후 흥미진진한 희락회가 이어져 밤이 늦도록 즐겼다고 한다.

1941년 3월 2일 나성 엘렌데일 플레이스 2716번지의 라성한인기독교회 예배당과 부속 라성한인양로원 헌당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한인들의 힘으로 건축하기는 미주 한인사회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의 이창성은 들어 나지 않았다.

다vidnjeon@yahoo.com

1932년 나성 감리교회 전도사, 1939년 라성한인기독교회 순행전도목사로 취임 1941년 라성한인기독교회 예배당과 부속 라성한인양로원 헌당

년에 예모리 대학으로 개학하였는데 오늘날 예모리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이 되고 있다. 본 대학은 인문과목을 중심한 2년제 대학이다. 윤치호가 본 대학을 졸업하였다.

1923년 2월 22일 조지 워싱턴 탄생일에 이창성과 홍득수가 옥스퍼드 대학 웅변대회에서 월계관을 받았는데 수백 명 청중은 한국에 희망이 많다고 혀를 내둘렀다. 1924년 본 대학 앨범에는 39명의 한 사람으로 그가 2학년으로 재학하고 있다. 이 해에 그는 필갑마 회원을 있었고, 목회반에서 활동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이창성은 의무금 등 의연을 계속한다.

연희전문학교

게 희망을 걸었다.

안도산 면회 이창성은 1932년에 미국 나성의 조선인 감리교회 전도사로 전임된다. 그 해 10월 11일에 그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안도산을 면회했다. 나성에 있는 안도산의 가족에게 전할 소식을 듣기 위해서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 몸은 건강하고 더욱이나 치통도 전파되었다고 하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도산의 장자인 필립더러 면회하려고 오지 말라고 전하는 동시에 올만한 여비는 가용에 보태 쓰라고 하며 재미동포들도 이 불경기한 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실업에 종사하라"고 했다

회를 보고"를 신한민보에 기고했다.

그 달 27일에 신한민보가 게재한 '새해를 맞으면서'에서 '조선 민족의 살 길이 열리고 서양이 비치는 희망의 새해 행복의 새해에는 새 정신 새 사상, 새 용기를 이어서 남들은 하루에 10리를 간다면 우리는 백리나 2백리라도 질주하여서 어공아사간에 급진 새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만복하시기를 멀리 축복 하겠사'라고 힘주어 말했다.

1935년 1월에 왓슨빌 일우 한촌에서 쓰고 다음 달까지 나누어 게재한 "미일 아일전쟁이 된다면 승패는 어디로"에 따르면 1935년부터 1937년까지의 3년이 심상치 않은 변동기라고 단정하고 개인

상으로 얻은 나의 종교관"을 광고한다. 그에 따르면 '창해일숙의 의로운 몸이 해의 생활 심어 성장해 가진 각색의 번민 고통 중에서 얻은 나의 경험을 토대하여 쓴 책은 그로 비록 문체의 조말과 내용은 불충분할망정 그 성의의 정신을 다소 취할 터미 있을 줄로 믿고 우리 한인 교회나 사회에 만분 지일이라도 봉사함이 될 가하여 이 소책자를 여러분 앞에 공개하오니 사랑하시는 동정심으로 한 권씩만 사서 읽어 주시면 이어서 더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까'라고 적었다.

책값은 25전에, 발매소는 상항 신한민보사였다. 그는 "책값은 25전에 불과하며 또 무슨 판주의 로나 혹은 영업적으로 만든 책자

<5면에서 계속>
어떤 사람이 폐암이 걸렸다. 담배를 많이 피웠기에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황체를 타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다.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렸고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고, 죄를 선택함으로 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어릴 적부터 배어져 왔던 그 못된 습관 때문에 그 영혼과 육체는 죽어가는 것이다.

아버지를 생각하라
아버지를 떠났다가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은 아버지와 그의 집을 생각한다. 큰 은혜가 임한 것이다.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큰 은혜로 찾아온 것이다. 쥐엄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된 것이 큰 은혜이다. 몸에 병이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해낸 것이 은혜이다. 그 때가 인생 회복의 순

간이 된다. 내가 떠난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많고 먹을 것도 많이 있음을 생각한다. 아버지 집에서는 종만 되어도 쥐엄 열매를 먹지 않음을 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된다. 아버

지께로! 그 순간이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 라고 하는 확증과 고백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게 확신으로 심령에 존재해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결코 창피하지 않은, 나는 내

주인, 내 목사, 내 아버지에게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 누릴 가장 귀한 복이다. 쥐엄 열매 먹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출발이다. "아버지께로!"

davidnjeon@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경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회: 오후 2: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usa.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권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권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8-701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회: 오후 2:00 EM: 대학: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토)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sa	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침례교: 오전 11:20 영양회 (영소+K.O.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저녁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경목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Tel: (213)559-7728 (전환 박스 경로),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9079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례교) 주일: 오전 1:45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배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현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 4:00(월-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비(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www.dkpc.org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저녁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 L.A., CA 90010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선: 365일 24시간 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Ct.,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714)749-4500, Fax: (714)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g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 학교: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stev.org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예배)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청년예배: 오전 10:00 주일 학교: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시...

성경도 신앙(40) 청교도의 가정생활



이윤석 목사
(NY 브루클린 제일교회)

2) 청교도 자녀교육의 이상 자녀에 대한 청교도들의 자세는 현대인들의 자세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자녀의 회심이 극적인 경험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가이우스 데이비스(Gaius Davies)는 청교도의 자녀 양육의 이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설교자들은 사랑이 모든 부모의 의무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녀들을 버릇없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원숭이같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품다가 죽여서는 안된다. 부모의 모범은 기록함의 가장 큰 자극이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에는 어머니의 모범이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가능

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와 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4-9).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교육의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매일 삶의 내용이 되게 함으로 출발하듯이 청교도들은 이런 삶의 구체적인 방식을 확고하고 견고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었다.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적 전통에 따라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며, 거듭나지 않은 자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교육의 대상이 “본래의 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으며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죽었고 더러워진”(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2절) 사람이란 것을 의식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방치해두면, 인간 본래의 악한 의지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존 로빈슨(John Robinson)은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의 죄성을 용인하지 말고 반드시 꺾어서 본죄해야 한다”고

더불어 언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언약 당사자인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언약의 조건을 숙지하게 하고 모든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은혜언약과 함께 철저한 경건교육의 필요성 강조

은혜 언약은 축복의 수단이지만 동시에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피터 버클리(Peter Buckley)는 주장하기를 언약의 자녀들은 “부모와 교회에 의해 2배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한다면 그들의 부모보다 더 뛰어나게 될 수 있지만, 신앙으로 양육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도 2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 세상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의 자녀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경건한 교리에 대한 지식은 세상 지식보다 수백만 배나 더 필요하다. 그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위장관 질환

식습관이 가장 큰 원인... 높은 흡연율과 과음, 스트레스 영향

한국인들은 특히 소화기계, 즉 위장관 계통의 질환을 많이 앓는 것으로 의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 미국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소화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왕효소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 미국 내 한인들이 밀집해 사는 한인 타운 지역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개인적으로도 한국인이 아닌 타 민족이 소화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일은 거의 본적이 없다. 위암은 한국 남성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암이고 식생활의 변화에도 아직까지 위암 발병은 줄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위장 질환부터 위염, 위궤양, 더 나아가서 심각한 질환인 위암에 이르기까지 위장 계통의 질환이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한국인들의 독특한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문화 때문이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을 것이다. 또 한국인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흡연율이 높고 과음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 모든 암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든 매우 높은 수준인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위암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인에게 위장 질환이 많은 원인은 위의 세 가지와 모두 관계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이 가장 즐겨먹는 김치는 염분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매우 높고 한국음식으로 하루 세끼를 먹을 경우 평균 염분 섭취는 20그램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위암의 원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염분을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암 유발인자인 헬리코박테리아가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고염분 식사를 하게 되면 위 점막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이 때문에 헬리코박테리아의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로 인한 세균의 증식과 아질산염의 위장 내 생산을 증가시켜서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장관 질환 중 과거 30년 전에는 쉽게 볼 수 없던 대장암의 발병 빈도가 한국인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매우 두드러진 점이다. 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본인 2-3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생활 패턴의 변화가 질병 발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여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대장암은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고 고지방과 붉은 살코기 위주의 육류를 섭취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나 비만, 흡연과도 연관이 있다. 한인 이민자는 미국에 이민 후엔 짧은 기간 내에 육류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뀌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비해서 걷지 않는 미국식 생활 습관 때문에 내장 비만의 축적으로 인해 대사 증후군에 걸리기 쉽다. 이로 인해서 당뇨병 등의 발병이 증가할 뿐 아니라 대장암 등의 빈도도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또 한국인의 흡연율은 평균 미국인들의 흡연율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육식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하도록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장 비만을 대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흡연 습관을 버리고 정기적인 위 내시경과 장 검사를 의사와 상의해서 하도록 한다. 한국인에게 흔한 간 질환은 B형 간염, 지방간, 급성 전염성 질환인 A형 간염이고 1980년대 이전에 수혈을 받은 경우 C형 간염을 앓고 있는 사례가 있다.

B형 간염은 젊은 층에서 매우 흔해서 조기 검진을 통한 진단이 중요하고 활동성 B형 간염으로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를 통해서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간염 환자가 알코올을 섭취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약제를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부모 모범은 기록함의 가장 큰 자극...참는 인격과 사랑, 진리와 훈련 과정 필요 모든 사람이 원죄 영향으로 전적 부패해 있다는 믿음으로 신앙인 양성으로 양육

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건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명심하여 학교의 교사들을 선택해야 한다. 자녀의 적성 재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직업을 위해 양성해야 한다. 기독교 사역의 요구들을 기억하여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자녀의 첫 번째 신앙교육은 연령에 맞게 함으로서 자녀가 신앙교육을 기쁨으로 받게 해야 한다. 경건의 씨앗은 초기에 심어야 한다.”

이런 청교도 신앙의 성경적 기독교 교육의 진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청교도들의 가정생활은 경건과 훈련이 함께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용시키는 내용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현대의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온전한 정신과 올바른 사고를 위하여 기독교 신앙 교육이 필요하며 이런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인격과 사랑과 진리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쉘마(Shema)교육의 말씀의 장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

3)청교도 자녀 교육의 목표 (가)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

청교도들은 자녀들을 선량한 시민으로 양육하거나 도덕과 양심 따라 사는 문화인이 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으로 양육하고자 하였다. 청교도들은 현세에서의 출세나 성공보다는 신앙적인 성숙을 목표로 삼고 자녀를 양육하였다. 보스턴 교회의 목사였던 존 노튼(John Norton)은 “자녀교육의 목표를 이 세상에 두는 사람은 신발에만 관심을 갖고 발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다.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교인들에게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설교하면서 “만일 당신이 자녀에 대한 관심이 단지 현세적인 부귀와 영화를 얻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들을 세속적인 것으로만 채워지도록 독려한다면, 당신과 당신 자녀의 묶은 이 세상뿐이요 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경고하였다.

청교도들이 교육의 목표를 사회적 성공보다는 신앙인 양성으로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믿

주장하였다.

(나)은혜 언약에 입각하여 구원에 이르는 충실한 신앙 양육

청교도들이 신앙 교육의 우위성을 강조한 것은 자녀들을 은혜 언약의 자손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구약의 연속성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이 신약시대에도 적용된다고 보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본질상 신약의 언약과 같은 것이므로 신앙교육을 통해 은혜 언약을 자녀들에게 적용하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배경에서 존 코튼(John Cotton)을 비롯한 청교도들은 유아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주장하고 그들이 은혜 언약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신앙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였다.

믿는 자의 자녀는 은혜 아래 있지만 그들의 구원은 조건적이다. 하나님이 은혜언약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였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토머스 코벳(Tomas Cobbett)은 자녀들은 부모 안에서 부모와

지식 없이는 우리의 자녀들은 영원히 비참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은혜 언약을 통한 구원의 성취와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한 신앙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녀 교육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을 실행하였다.

4)청교도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의무

(가)조기 교육에 대한 강조

청교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할 때 효과가 높다고 이해하였다. 존 코튼(John Cotton)은 “유아들은 백지와 같은 상태라서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청년이 되기 전에 신앙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앙 교육이 어린 시기에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녀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무엘 윌라드(Samuel Willard)는 “유아를 규제하려면 지체하지 말라. 그들이 한 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신앙으로 교훈하라”고 하였다.

younsuklee@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몽양장로교회</p> <p>담임목사: 송병기</p> <p>Tel: (718)361-9199, Fax: (718)361-9433</p>	<p>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p> <p>담임목사: 이윤석</p> <p>Tel: (718)265-2588</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해천</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p>	<p>뉴욕새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정기태</p> <p>Tel: (917)733-7387</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p> <p>담임목사: 허윤준</p> <p>Tel: (718)866-1470</p>	<p>뉴욕새사랑교회</p> <p>담임목사: 이종원</p> <p>Tel: (718)461-2810</p>	<p>뉴욕센트럴교회</p> <p>담임목사: 김재열</p> <p>http://www.pccny.org</p>
<p>뉴욕순복음안도교회</p> <p>담임목사: 이만호</p> <p>Tel: (718)461-7835, CP: (718)938-1777</p>	<p>뉴저지성도교회</p> <p>담임목사: 허성희</p> <p>Tel: (201)342-9194, Fax: (201)943-5204</p>	<p>리빙스턴교회</p> <p>담임목사: 유상열</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p>	<p>주비전교회</p> <p>담임목사: 이규본</p> <p>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p>	<p>퀸즈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Tel: (718)886-4040, Fax: (718)358-7789</p>	<p>퀸즈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성국</p> <p>Tel: (718)672-1150 Fax: (718)672-1151</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www.mjcs.org</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목회서신

만일 하루 밖에 못 산다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

쌓아둔 그 모든 재물이 누 것이 되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화의 부자는 앞으로 하루도 못 살...

할까요? 1. 현재 내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만일 내일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2. 복음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5:24)고 말씀하셨습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몇 명이나 전도하고 왔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으로만 자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4. 돈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루 밖에 못 살 텐데 돈 문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돈 문제가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항상 깨닫아야 합니다. 죽을 때 빚을 지거나, 남의...

돈을 떼어먹은 채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득이 부채를 지는 일이 있었다면, 죽기 전에 가급적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성도가 빚을 지고 갚지 못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전도의 길도 막히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루 밖에 못 산다면, 돈 문제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 하루 밖에 못 산다면, 내일 죽는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현재 내 믿음의 현주소가 온전하지 먼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질(돈) 문제로 걸리는 것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KAPC 로스앤젤레스 노회장 김현인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PCA한인서남노회에서 신임노회장 조형수 목사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CRC한미노회가 올림픽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 29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노회장 김현인 목사) 제 29회 정기노회가 12일 오전 10시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열렸다. 박대원 목사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김성일 목사 기도, 차병학 목사 성경봉독 후 김현인 목사가 '주의 일꾼들'(행13:1-12)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덕목이 갖춰져야 하는데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있어야 하고 '순종하고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하며 '순종으로 인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 모든 노회원들은 이러한 덕목을 갖춰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노회에서는 특별한 이슈 없이 각 부 보고와 시찰회 보고와 회의가 있는 후 은혜롭게 막을 내렸다. 한편 11일에는 노회소속 교회에서 청원한 장로교회가 치러졌다. <이성자 기자>



KPCA 서중노회 제 33회 정기노회가 진행되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노회 되길” KPCA 서중노회 제33회 정기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노회장 강신형 목사) 제 33회 정기노회가 11일과 2일 양일간 선한침지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열렸다. 11일 오후 7시, 노회에 앞서 강신형 목사 인도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정연호 장로(부노회장) 기도, 강신형 목사 설교와 송병기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후 백정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강신형 목사는 '함께 지어져 가는 노회'(엡2:19-22)란 제목으로 "요즘 세대가 공유와 공감시대인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있다. 모든 교회와 서중노회에 속한 노회원...

들은 하나가 돼 협력하며 귀한 일을 이뤄가는 노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예배 후 노회장 사회로 진행된 정기노회는 회원점명과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각 선교회와 위원회 보고, 감사 보고 재정부 보고 등을 은혜가운데 마쳤다. 회의 둘째 날에는 송병주 목사의 '이민교회가 받는 도전과 선교적 교회의 방향'과 이상명 목사(미주장신 총장)의 '바울 선교와 선교적 교회'란 주제의 강의가 있는 후 폐회 예배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 홍보 행사 '후원의 밤'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노회장 조형수 목사, 부노회장 정공필 목사 PCA 한인서남노회 제69회 정기노회

PCA 한인서남노회는 제69회 정기노회를 12일에 개최하고 노회장에 조형수 목사, 부노회장에 정공필 목사를 선출했다. 12일 오전 10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개최한 정기노회는 지난 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조형수 목사가 노회장으로, 그리고 임원선거를 통해 정공필 목사가 부노회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조형수 목사는 "노회에서 신실하신 분들을 보면서 노회가 선한 열매가 맺어질 때가 된 것을 느끼게 된다"며 "노회가 발전적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회는 임원선거 때 회계 후보인 이상현 장로의 후보자격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상현 장로는 은퇴장로이며 총대자격을 얻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현재 한인서남노회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것, 그러나 PCA 미국노회에서 은퇴자들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에 근거해 이 장로의 후보자격여부 문제없음으로 결정됐으며 투표결과 회계로 선출됐다. 한편 이날 노회가 열리기전에 가진 개회예배는 노회장 박영기 목사 사회로 시작, 박석민 목사가 기도했으며 박영기 목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살전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노진준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으며 이홍도 목사가 축도했다. 다음은 노회 새 임원명단. △노회장 조형수 목사(풍성산교회) △부노회장 정공필(라스베가스장로교회) △서기 김성천 목사(은혜교회) △부서기 박신철 목사(인랜드교회) △회의록 서기 정한식 목사(한길교회) △부서기 백요한 목사(인랜드교회) △회계 이상현 장로(한길교회) △부회계 신정훈 장로(벨리 밴앨조교회). <박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의 밤' 열려 미주동포후원회 주최... 권용섭 화백 퍼포먼스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과 홍보 행사 '후원의 밤'이 평창동계올림픽 미주동포후원회(대표회장 이병만, 대회장 홍명기) 주최로 14일 LA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서영진 행정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열린 1부 순서는 테너 최왕성(전 남가주한인음악협회 회장)이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제창했으며, 이병만 회장과 홍명기 대회장이 인사말을 전했고 이기철 LA총영사가 환영 인사했다. 이병만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기원한다"며 "이번 올림픽이 우리조국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명기 대회장은 축사에서 "88 서울올림픽의 감격이 잊고선 같은데 또다시 조국 대한민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후원의 밤을 갖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조국의 통일 그리고 번영의 꿈을 함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이회백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상황이 영상으로 소개됐다. 특별히 이날 소노로스 남성중창단이 특별축가를 불렀으며 박행만 총청향우회장이 축배제를 하자 이날 모인 참석자들이 함께 축배했다. 2부는 권용섭 화백의 평창동계올림픽 수목화 그리기 퍼포먼스로 시작됐으며, 에릭가세티 LA시장, 마쿠스 헤리스 도슨 시의원에게 감사장 및 우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LA총영사관, 한미연합회 공동주최로 열린 차세대 지도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장성우 조다윗 최영조 목사 영입고시 CRC 한미노회 2017 가을정기노회

북미주개혁교회(CRC) 한미노회(의장 문상면 목사)는 2017년 가을 노회를 12일 올림픽장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에서 가졌다. 노회가 열리기 전 드린 경건회는 정장수 목사 인도로 진행됐으며 박형주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다. 이어 열린 회의는 교단 및 노회...

각위원회 보고가 있었으며 장성우 목사, 조다윗 목사, 최영조 목사의 교단 가입 영입고시가 있었다. 점심식사 후 속개년 회의에서는 칼빈신학교 이사보고, 노회실무행정보고, 지교회 문제 등이 논의됐다. <박준호 기자>

고 임동선목사 추모 음악회 열린다 라크마 챔버 오케스트라, 챔버 콰이어 협연

복음의 열정을 품고 평생을 교육과 봉사, 선교에 열정을 쏟으시며 복음으로 인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하며 청빈의 삶을 살아오다 천국으로 가신 복음의 거장 고 임동선 목사(한길교회) △부회계 신정훈 장로(벨리 밴앨조교회). <박준호 기자>

도에서 출생, 서울 신학교와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북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를, 남가주신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5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70년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1987년 세계복음선교연합회를 설립했다. 이후 1989년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하고 세계를 다니며 1200회 이상 집회를 이어오다 향년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동양선교교회에서는 23일 음악회를 비롯해 24일(주) 오후 4시 추모예배, 29일(금)부터 24일(주)까지 말씀사경회, 30일(토) 오후 5시 경로잔치 등을 갖는다. <이성자 기자>

차세대 지도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LA총영사관, 한미연합회 공동주최로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 KAC)와 공동으로 창업에 성공한 한인 기업가들의 경험과 노하우, 비전을 공유하는 차세대 지도자 멘토링 및 네트워킹 행사(Leadership Series : Entrepreneurs)를 13일 저녁 총영사관저에서 개최했다. 금번 행사에는 브라이언 리 LegalZoom 공동창업자, 토니 고 NYX Cosmetics 창업자, 토니 김 Hudson Jeans 대표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여했고, 그레그 리 ABC 방송기자가 진행을 맡았으며, 데이비드 류 LA 시의원, 총영사관과 한미연합회 관계자, 20-30대 한인 청년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과 한인 청년들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창업열정을 어떻게 발견...

했는지 △미인 1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의 교훈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 △실제로부터의 교훈 △사회 환원에 대한 중요성 등에 대한 경험담과 솔직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기철 총영사는 행사 모두의 축사에서 △인생에서 주인공의식과 호기심을 갖는 습관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조국인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높은 경제발전 등을 동시에 이룬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 바,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주류사회에 진출하라는 취지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총영사관은 한인 젊은이들이 든든한 차세대 인재로 성장해 동포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교협 제 31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종국 목사) 제 31회 정기총회가 9월 28일(목) 오후 7시 뉴저지동산교회(담임 윤명호 목사,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에서 열린다. 6시부터 식사가 시작된다.

▲문의: (201)229-1561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

글로벌한인여성목회자연합회(회장 전희수 목사) 창립 1주년 감사예배 및 11차 어머니기도회가 오는 27일(수) 오전 10시30분 뉴욕 기쁨과 영광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646)270-9771

뉴욕청소년센터 SAT과정 개설

뉴욕교협 산하 청소년센터가 가을학기 대학 진학을 위한 SAT과정을 개설한다. 9월 30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점심 포함)이며 대상은 중고등학생 선착순 15명. 수업은 읽기, 쓰기, 수학, 맨토링으로 진행된다. 수업료는 850달러.

▲문의: (718)279-1313

“행복목회 컨퍼런스”

뉴욕교회협의회, 뉴욕목사회, 목포사랑의교회, 뉴욕프라미스코리아 공동 주관하는 “행복목회 컨퍼런스”가 10월 2일(월), 3일(화) 이틀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프라미스코리아(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 참석자는 사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718)321-7800, (347)860-4466 이메일 info@promise414.com

참사랑교회 제 7회 오픈커뮤니티 및 설립 45주년 기념음악회

퐁아일랜드 참사랑교회(담임 은희곤 목사)가 주최하는 제 7회 오픈 커뮤니티 및 설립 45주년 기념음악회가 10월 15일(주) 오후 4시 본 교회에서 열린다. 한국문화와 음식을 지역사회와 타민족, 타문화와 함께 나누기 위해 참전군인 가족들, 임업인 가족들, 지역사회 공무원들과 다민족 다문화 주민들을 초청한다. 음악회는 본 교회 성가대와 찬양단, 오케스트라가 준비한다.

▲문의: (516)485-2102

패밀리터치 대학진학설명회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대학 진학설명회 “장학금 받고 원하는 학교 가기”가 10월 19일(목) 오후 7시 뉴저지 오피스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 학부모로 대학 전까지 양육비용, 입학 후 학비, 효과적 학자금 준비방법(FAFSA) 등을 강의한다.

▲문의: (201)242-4422

월드밀알 찬양대축제

월드밀알 30주년 기념 월드밀알 찬양대축제가 10월 22일(주) 오후 8시30분 카네기홀에서 열린다. 월드밀알 외 출연진은 뉴욕프라미스코리아 찬양대, 뉴욕에일장로교회 찬양단, 뉴욕만백성감리교회 찬양대, 뉴욕하크네시야교회 찬양대, 뉴욕목사합창단, 뉴욕장로합창단과 황성주 박사, 소프라노 안수경과 랜디 브룩, 바리톤 김만규, 뉴욕농인교회 수화찬양팀 등이 공연한다.

▲문의: (718)460-5108

뉴하트선교회 담임목사 위임 및 임직예배

뉴하트선교회 정민철 담임목사 위임 및 임직예배 10월 29일(주) 오후 5시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장로취임: 유주중, 이상수 집사취임: 최금렬 집사임직: Jea W. Suh, John Sol, 권기원, 두준경, 박기수, 박준범, 박형록, 이승경, 최삼용 권사임직: 도옥주, 이남숙, 하명운 전도사 임명: June Hong, Paul Park, Timothy Chung.

▲문의: (516)627-570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부흥사경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부흥사경회가 22일(금)부터 24일(주)까지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강사는 황의영 목사(SBM총재)이며 시간은 금, 토요일은 오후 8시, 주일은 오전 11시다.

▲문의: (917)733-7387

반주자 청빙

뉴욕 나무교회(담임 정주성 목사)에서 교회 반주자를 찾고 있다. 주일예배 및 찬양대 연습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8시 반에 반주하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전공자나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자로 사례비는 월 600달러.

▲문의: (516)965-0789 하달룡 집사



뉴욕대학교에서 라흥채 목사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세미나

강사 라흥채 목사...뉴저지교협, 뉴욕목사회 주최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의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세미나가 뉴저지와 뉴욕에서 각각 열렸다.

뉴저지교협(회장 김종국 목사)과 뉴욕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가 주최한 이 세미나는 지난 11일 뉴저지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 14일 뉴욕대학교(담

임 김전 목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됐다.

라흥채 목사의 동 세미나는 뉴욕에서는 두 번째로, 지난 7월 27일 뉴욕교협(회장 김홍석 목사) 주최로 열린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정부회장 선거 입후보 마감

회장 이만호, 부회장 정순원, 김영환 목사



이만호 목사, 김영환 목사, 정순원 목사



프라미스코리아 김남수 목사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남수 담임목사 40년 근속 감사예배

프라미스코리아 설립42주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40년”

뉴욕 프라미스코리아 담임 김남수 목사가 근속 40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오후 4시 교회설립 42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김남수 목사는 1975년 12월 맨해튼에서 김성광 목사가 개척한 순복음뉴욕교회의 담임목사로 1977년 9월부터 시무했다.

김남수 목사는 담사에서 “맨 나 중에 만사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15:8)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는다”고 고백하고 지난 40년간 동역한 성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했다.

김 목사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지난 40년 동안 한 것이 있다면 그 분이 하셨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이다. 죽을 죄인을 구속하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은 모두 다 그 분 것이고 그 분께 돌려드린다”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김남수 목사는 1999년 Mission of Mercy와 협력으로 제3세계 불

우아동 후원을 시작해 2009년 4/14원도우 글러벌서밋을 개최하고 2016년에는 4/14원도우 파운데이션뉴욕 사무실을 개원했다.

2011년 남미 어린이 대상 축구 선교를 시작했으며, 2011년 뮤지컬 ‘히스 라이프’ 케냐 탄자니아 공연을 시작으로 뉴욕과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에서 공연을 해오고 있다.

예배는 허연행 수석부목사 사회로 프라미스찬양팀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돼 감사기도 및 리처슨 목사, 특별찬양 랜디 브룩&알렌 에스버리, 성경봉독 김원석, 김신희 집사, 찬양 연합성가대, 축하양상 조지우드 목사, 김삼환 목사, 장경동 목사, 최남수 목사, 말씀 두안디스트 목사(AG실행위원, 뉴욕지방회장), 특별영상, 축사 방지각 목사 최완기 목사, 축하연주 청소년 오케스트라 예루살렘 오케스트라, 스포셜공연, 담임목사 인사말씀, 광고 및 안내, 축도 이우용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만찬은 프라미스 솔로리스트의 오프닝 세레머니 후 케익커팅, 유재규 장로의 만찬기도 후 시작됐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동문체육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체력도 단련하고 단합 계기 마련”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동문체육대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회장 정기태 목사)는 지난 18일 알리 폰드 파크에서 동문 체육대회를 가졌다.

회장 정기태 목사는 “매년 열리는 동문 체육대회를 통해 체력도 단련하고 동문들이 단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며 “많은 동문들이 참여해 기쁘다”고 말했다.

35명 정도가 참여한 체육대회에서 동문들은 배구와 축구, 릴레이 경기를 하며 친선을 다졌다.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최화숙 전도

사, 설교 정기태 목사, 축도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대 목사는 “상을 얻는 자”(고전9: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인생도 경기처럼 처음이 있고 끝이 있으며, 사역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동문들이 사역을 할 때 초심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고 말하고 “우리 신앙만큼, 우리 사역만큼은 일등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문들을 고무시켰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가든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 10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치러질 정부회장 선거의 입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5시 마감됐다.

입후보자는 회장에 이만호 목사(현 부회장,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순복음북미총회), 부회장에 정순원 목사(빛과소금교회 담임, 나사렛교), 김영환 목사(뉴욕효성교회, 남침례교), 평신도부회장에 강영규

장로(뉴욕기쁨교회, ARPC)가 서류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만호 목사는 변수가 없는 한 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회장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두 부회장 후보자는 모두 뉴욕목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정순원 목사는 36대 회장, 김영환 목사는 44대 회장을 지냈다.

선관위원회(위원장 김원기 목사)는 19일 오전 10시 모임을 갖고 후보자 서류를 모두 통과시켰으며 교협은 오는 22일에 입후보자 등록 및 총회 공고를 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성전이전 및 임직감사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장로 최문식 김진규, 안수집사 안중호 임직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성전이전 및 임직감사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가 지난 17일 성전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동 교회는 퐁아일랜드에 성전을 구입했었으나 사정상 퐁아일랜드 지역을 접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후레시 메도우에 있는 루터란교회를 임대해 이전예배를 드렸다.

또 최문식 장로와 김진규 명예장로, 안중호 안수집사의 임직식을 가졌다.

교회가 소속된 순복음북미총회가 주도한 예배는 이만호 목사 인도로 기도 이정환 목사(부총회장), 성경봉독 한삼경 목사, 찬양 CBSN 합창단, 설교 양승호 목사(총회장), 헌금기도 김민진 목사(동북부총회장), 헌금특송 살롬크로마하프 선교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는 “우리가 사는 비결”(겔 37: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우리가 볼 때 전혀 살 수 없는 마른 뼈의 소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며 “①하나님의 말씀 ②침몰-예수 보혈의 은혜 ③살-사랑 ④가족-인내 ⑤생기-성령의 다섯 가지가 우리가 사는 비결”이라고 역설했다.

임직식은 강승호 안수위원장(동북부지방회장) 사회로 장로장립, 집사안수, 임직선언, 서약, 안수, 공포를 한 후 담임목사가 배지와 선물, 임직패를 수여했다.

축사는 김홍석 뉴욕교협회장, 김상태 뉴욕목사회장이, 권면은 신현택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의장이 맡았다.

이어 순명학 장로의 인사와 광고 후 박수철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만찬은 허윤준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됐으며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이 증정됐다.

(유원정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서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뉴욕서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서노회(노회장 이종태 목사) 81회 정기노회가 지난 12일 오전 9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이종태 목사 인도로, 기도 오영상 목사, 설교 이종열 목사, 헌금기도 박정식 목사, 축도 정관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영인 목사의 인도로 성찬예식이 진행됐다.

이종열 목사는 시편 23:1-6을 본문으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만족은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우리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한다. 목회도 가정도 쉽지 않을 때 달려갈 곳은 하나님 앞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런 회무를 통해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 장로 2인 증원 △든든한교회 남일현 목사 위임예배를 위한 위임국 설치 △사랑장로

교회(박종욱 목사) 3인 장로교시 △엘림장로교회(임동렬 목사) 장로 1인 증원 △스테팔라 선교사 이종호 목사 노회가입 청원 등을 다뤘다.

가든노회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는 2018년 총회 호스트 노회로 총회준비에 돌입했다.

노회 소속 김재열 목사가 지난 41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내년 5월 열리는 42회 정기총회는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뉴욕남노회가 준비해야 한다.

지난 5일 센트럴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는 뉴욕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이재덕 목사를 선임했다. 이재덕 목사는 “내년 총회는 대형 호텔이나 뉴욕센트럴교회 가 새롭게 신축한 예배당에서 열린다. 은혜로운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회무를 통해 새로운 목회자 후보생 2명의 가입을 허락했으며, 이선용 목사의 교단이명으로 권영국 목사가 부노회장으로 보궐됐다.

(유원정 기자)

가수 강균성, 시작장애 하경혜 찬양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 '밀알의 밤' 성황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이 15일부터 17일까지 남가주의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우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첫날 오후 7시 ANC은누리교회에서 열린 '밀알의 밤'은 지저스윅릭밴드의 찬양인도와 박성호 목사(ANC은누리교회 총괄)가 환영인사를 했다.

이어 사랑의캠프 영상소개와 밀알수여찬양단의 수어찬양, 밀알선교단 소개영상 등이 있는 후 시각장애 찬양사역자 하경혜 자매가 아름다운 찬양을 선사했다.

이날 메인게스트인 강균성 형제는 "이곳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그의 인생스토리를 풀어내었다. 강균성 형제의 간증은 마치 부흥집회의 강사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강렬하게



201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밀알의 밤에서 강균성 형제가 찬양하고 있다.

정중들에게 전달이 됐다.

그는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은 교회 다니는 자들이 싫어서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기에 기독교가 왜곡돼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균성 형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삼으셨다. 하나님사랑을 온전히 전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마치 녹슨 파이프를 통해 나오는 녹물 같은 모습만 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삶속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균성 형제는 가수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2015년부터

연예계에 주목을 받고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콘서트를 진행했다. 그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라 말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졌기에 전부를 가진 자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다. 모이는 것에 힘쓰자. 하나님관계 예배 속에서 회복하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하고 예수님을 최고가치로, 하나님을 비전삼아 예수님의 성품으로 넉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전문성과 성실성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강균성 형제는 '청춘', '다행이다', 'The last time' 등 가요와 팝송을 불렀으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품에', '멈출 수 없네' 등 찬양을 ANC 은누리교회에 모인 정중들과 함께 불렀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 은혜선교관 기공예배에서 관계자들이 첫삽을 뜨고있다.

은혜한인교회 은혜선교관 기공예배 2018년 8월 완공...은퇴선교사 임시거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은혜선교관 기공예배가 14일 오전 11시 은혜선교관이 들어서게 되는 본 교회 주차장에서 열렸다.

한기홍 목사는 환영사에서 "선교사들이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선교지에 갔다. 우리교회는 59개국 308명 선교사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들이 사역한지 30년이 지나 은퇴하고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선교사들은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한평생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왔지만 마땅히 거처가 없다. 이 장소에 선교관을 지어야겠다고 결정했다. 선교관 건축을 위해 풀러턴 시장과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건축하게 됐으며 오늘 기공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권상욱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은퇴선교관 기공예배는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대표기도 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환영사를 했다. 이어 김광신 목사(본 교회 원로)가 말씀을 전했다. 김광신 목사는 "그동안 선교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오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선교의 과정은 첫째, 선교사를 세워서 현지로 보내는 것이다. 둘째, 선교사들이 가서 현지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

의 종을 기를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전세계에 쿠바를 위시해서 17군데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네 번째는 선교회관을 세우는 것이다. 선교회관을 세우는 것이 선교의 마지막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많은 일들을 보다 열심히 이행해야 한다. 현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선교사들이 노후에 본 교회에 돌아와서 지낼 곳이 생긴 것은 기쁜 일이다. 많은 과정의 일들이 보다 살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에 이어 부르스 위테이커 풀러턴시장과 이호우 목사(OC교회 협회장)가 축사했으며 권형석 장로가 은퇴선교관 건축일정 설명과 건축 위원회를 소개한 후, 김태원 목사(GMI은퇴선교사)가 축도했다.

본교회 은퇴선교관은 9월초에 착공됐으며 2018년 8월에 완공하고 입주 시작될 예정이다. 선교관의 목적은 은퇴선교사들이 노인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2-3년 머물 수 있는 임시 공간, 단기간 방문 선교사들과 교회소속 숙소용으로 활용된다.

선교관은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지며 2층은 7개의 1베드룸 아파트로, 1층은 9개의 호텔스튜디오 형식으로 지어진다.



LACS 12회 정기연주회가 '사랑하면 할수록' 주제로 열렸다.

LA크리스천싱어즈 제 12회 정기연주회

제 12회 LA크리스천싱어즈(LACS 단장 김철이 목사) 정기연주회가 16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렸다.

김철이 단장은 "찬양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첫째 주님께 영광이요 둘째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LACS가 '사랑하면 할수록', '가곡메들리'를 불렀으며

며 소프라노 김은혜, 크리스틴정, 박은미, 김도희, 양유진, 문혜원, 테너 오우영, 바리톤 류정상이 출연해 솔로곡을, 소프라노 김도희와 테너 오우영이 듀엣으로 'Tonight', 소프라노 크리스틴 정과 바리톤 류정상이 오페라 돈조바니의 'La Ci darem la mano'를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LACS가 축배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충현선교교회 텔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에서 신애라 집사가 간증하고 있다.

새생명축제 일한... "하나님 주시는 복 누리라" 충현선교교회, 텔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텔런트 신애라 집사 간증집회를 17일 오전 11시30분에 개최했다.

본교회 새생명축제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간증집회에서 신애라 집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 궁금증을 갖게 된다"며 "중3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 분위기와 친구들이 좋았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며 열심히 다녔다"고 말했다.

신 집사는 "세상 일이 마음만 먹으면 다 힘으로 다 되는줄 알았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그게 아님을 알게 됐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 처해있다면 끔찍한 죄를 저지러 수 있다. 죄성을 가진 죄인이라니 것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빠져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언급했다.

신애라 집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기자로 만드셨다면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

셨는데 그러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하지만 언기자는 내 직업이고 나에게 소명은 따로 있음을 알게 됐다"며 "한국에 돌아 가면 마땅히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잘되면 누군가는 불행해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어떤 환경에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고 축복이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 교회 SOL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민중기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민중기 목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계13:1-1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후 신애라 집사의 간증시간이 있었다.

이어서 초청된 성도들을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 민중기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제6회 이화배제 사랑의음악회에서 배재코랄이 찬양하고 있다.

제6회 이화배제 사랑의 음악회

제 6회 이화배제 사랑의 음악회가 17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이화여고동창합창단이 주관하고 남가주이화여고 동창회와 남가주 배재동창회가 후원해 열린 이날 연주회는 이은철 목사(남가주밀알선교단 고문) 개회기도로 열려 이화여고동문합창단(단장 송모령, 지휘 민재희)이 'The Prayer', '주 보다

라', '오솔길', '바람' 등을, 배재코랄(단장 김동천, 지휘 유의철)이 '오직 한분', '비추소서', '보리밭', '사랑의 노래' 등을 불렀다.

그리고 윤희진과 코니 최가 하프 이중주 연주를 했으며 바리톤 정재혁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사'를 불렀다.

이날 연주회는 박영천 목사(나성동산교회)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최광명 선교사 별세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선교사 최찬영 선교사 부인 최광명 사모가 9월 16일 오전 7시 소천했다. 향년 88세. 고인은 1929년 8월 31일 독립운동을 하던 김예진 목사와 한도신 사모 사이에 셋째 딸로 태어났으며 최찬영 목사와 결혼, 1955년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됐다. 김광명 선교사는 한평생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 선교사를 돕는 역할에 만족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웃 입고 순교자의 강한 믿음을 섬김으로 보였다. 고 최광명 선교사 장례는 입관예배 22일(금) 오후 6시 포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천국환송예배와 하관예배는 23일(토) 6300 Forest Lawn에서 오후 5시와 6시에 각각 드려진다. 유족으로는 남편 최찬영 선교사(91세)와 아들 사무엘과 다니엘, 딸 헬렌과 미란이 있다.

▲문의: 포감사선교교회(323)225-9111/한인세계선교사회 미주지부(714)350-6957

반주자 청빙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세계교회(담임 임지석 목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역할 반주자를 청빙한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으로 나 이 드신 분도 환영한다.

▲문의: (213)219-9229

유년주일학교 교역자 청빙

어바인새생명한인교회(담임 정철 목사)에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를 청빙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ewc0691@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949)330-3800

비전케어 무료 검사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 서부(이사장 이창영)가 진행하는 '아이케어'가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픈뱅크 웨스턴지점(550 S. Western Ave)에서 진행된다.

▲문의: (213)281-2617

와이낫재단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와이낫재단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30일(토)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 은혜관에서 갖는다. 10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인종 발달장애인(5-50세)을 대상으로 갖게 되며 등록은 23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문의: 이용호 집사 (818)515-7777

소망소사이더티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

소망소사이더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창립 10주년 후원의 밤을 23일(토) 오후 5시30분에 갖는다. 이번 행사는 오후 5시30분 소망행사를 갖게 되며 주제 강연자는 박근선 아프리카차드 지부장이 맡는다. 6시30분 저녁식사 후 7시에 하모니아 싱어즈가 축하공연하게 된다.

▲문의: (562)977-4580



경동나비엔 한인가정상담소에 사랑의 온수매트 전달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동나비엔, 사랑의 온수매트 전달 한인가정상담소에 작년 이어 올해도 5대

글로벌 난방 문화를 선도하는 경동나비엔이 LA 한인 커뮤니티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다. 지난해 프리미엄 온수매트 '컴포트 매트'를 미주시장에 선보인 경동나비엔(미주법인장 이상규)은 13일 LA에 있는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를 방문, 1대당 500달러 상당의 컴포트 매트 5대를 기증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이번 기증받은 온수매트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위탁가정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바 있다. 이상규 경동나비엔 미주법인장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달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정식을 진행했다"며 "기업을 통한 사회 공헌이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둔 본사는 첨단 친환경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전에 앞서는 것은 물론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커뮤니티 속의 기업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대 중 4대는 현재 위탁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위탁가정에 전달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가올 겨울을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나머지 1대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4회 연례기금모금 만찬에서 옥션 상품으로 판매해 수익금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동지찾기'를 위해 쓸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은 지난해 말에도 한인가정상담소에 온수매트 5대를 기증, 심신이 지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가정에 따뜻한 사랑을 전한

카니정조 소장은 "지난겨울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온수매트를 선물 받고 누군가 자신을 후원하고 응원한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아 다시 힘을 내보겠다고 마음을 다잡은 일이 있었다"며 "올해는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위탁가정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위탁가정 부모님들에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예장합동 제102회 총회 개막

“개혁자들 신앙 위에 우리 교단 세워지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은 18일 오후 2시 전북 익산 선화로 기쁨의교회(박윤성 목사)에서 4박5일간의 제102회 총회를 개최했다.

김선규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500년 전 종교개혁은 이 시대의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준다”며 “우리 교단부터라도 타락한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깊게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처럼 성경만이 모든 신앙과 삶의 절대적 규범임을 알아야 한다”며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며 개혁자들의 신앙 위에 우리 교단이 세워지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 첫 날에 성찬예식, 회소제막, 노회분립 보고, 임원 선거 등이 진행된다. 예장합동은 22일까지 ‘총신대 이사회 통합의 건’ ‘남광당 문제 해결의 건’ ‘한국기독교연합가립의 건’ ‘종교인 과세 관련 대응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처리할 예정이다.

예장합동은 전년 대비 교인과 교

회, 목회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이어진 교인 감소 기조가 4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교인은 2.3%, 목회자는 1.1%, 교회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예장합동 교인 수는 2015년 270만 977명에서 2015년 276만 4428명으로 6만 3451명 늘어났다. 교회는 1만 1770개에서 1만 1937개로 167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목사 수는 2만 3179명에서 2만 3440명으로 261명 늘었고 전도사 수도 1만 1632명에서 1만 2226명으로 594명 늘었다. 반면 강도사 수는 843명에서 837명으로 7명 줄었다.

한편 총회가 열리고 있는 전북 익산 선화로 기쁨의교회(박윤성 목사) 입구에는 개회일인 18일부터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화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피켓에는 ‘총회는 여성안수 허락하라.’ ‘목사 자격 남성한정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회원들은 “예장합동 헌법개정위

원회가 지난 7월 24일 개최한 ‘제101회기 헌법정지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에서 목사의 자격과 관련한 헌법조항을 현행 ‘연령은 만 30세 이상이라야 한다’에서 ‘30세 이상의 남자라야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현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교단 내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키는 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남자라야 한다’는 문구는 진지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두지 않은 것”이라며 “1998년 이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어떠한 성경적 연구물도 발표되지 않은 만큼 교단 내에서 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 뒤 현의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성 과 여성에 대한 성경 본문을 해석 작업을 공정하고 진지하게 연구한 후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장합동은 1998년 제83회 총회에서 여성안수 조사위원회 연구를 통해 ‘여성안수 문제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 이므로 진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연구를 통해 성경적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예장통합 102회 정기총회 개막

총회장 최기학 목사, 부총회장 림형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2회 정기총회가 18일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개최됐다. “기쁨과 영광, 다시 세상 속으로”를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총대 1460명 중 1341명이 참석했다.

개회예배에서는 부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요한복음 3장 16-17절 등을 본문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며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증명하셨다”고 설교했다. 최 목사는 “세상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기술이 발전하고, 삶은 윤택해졌지만 사람들 사이는 더욱 삭막해졌고, 배려와 돌봄은 사라져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 다니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마9:35)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연금재단 관련 논란이 마무리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직 연금재단 특별감사위원의 배임·횡령 관련 고소건 등과 연관된 소송이 다수 제기돼 있다. 최근 총회 임원회와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는 간담회를 열고 법적 분쟁을 끝내고 화해하는 방안을 모색한바 있다.

주목할 만한 현의안은 최근 출범한 교회연합기구인 한기연 가입 불허에 대한 안건이다. ‘또 하나의 연합기관이 생겨나면서 불필요한 예산, 인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총대들이 적지 않은 만큼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총회헌법위원회가 ‘교회세습(목회대물림) 금지법’이 성도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 보완을 제안한 만큼 세습금지법의 개정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이 외에도 ‘지자체 인권조례안 제

정에 대한 교단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목회자의 성윤리 및 재정윤리 관련 위원회 조직 및 프로그램 제정’ ‘총회 산하 목회자와 사모를 위한 목회직업훈련원 신설’ ‘교육목사 제도 신설’ 등의 안건도 논의된다. 첫날 치러진 임원선거에서는 현 목사부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총회장 직을 자등으로 승계했다.

5명의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재투표 끝에 기호 4번 림형석(평종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연세대와 장로회신학대 신대원, 미국 풀러신학대를 졸업한 림 목사는 안양노회 노회장 총회 국내선교부 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림 목사는 현재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이사, 해양의료선교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부친은 예장통합 68회 총회장을 지낸 림인식 노량진교회 원로목사다.

림 목사는 “총회장 및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총회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이현범(유덕교회) 장로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속회되기까지는 꼬박 5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후 3시 15분 속회 된 총회에서 ‘교단명칭을 ‘백석’으로 한다’는 결론이 발표되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총대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자”는 총대들의 목소리가 뒤엉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사태 해결을 위해 정채자문단이 다시 모였다. 그리고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합의안이 통과되자 선관위의 임후 보고와 임원 선거까지 일사천리로 회무가 진행됐다.

임원 선거에서는 2015년 통합 당시 결의에 따라 제1부총회장을 지낸 유충국(구리 제자교회)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제1부총회장에는 이주훈(동탄사랑교회) 목사, 제2부총회장에 박근상(대전 신석교회) 목사, 제3부총회장에 박경배(송촌장로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 이재원(해오름교회) 장로가 각각 박수로 추대됐다.

이 외에도 ‘한기연 가입 정원의 건’ ‘대외협력위원회 설치 방안’ ‘연금제 시행을 위한 준비위 구성’ ‘목회자 정년 75세로 연장안(현행 70세)’ ‘과천 은혜로교회 신목주씨에 대한 이단성 조사 요청의 건’ 등이 논의된다.

전시된다. 이들 사료는 ‘성경’ ‘공교육’ ‘여성 권익 신장’ ‘디아코니아’ ‘예배’ 등을 주제로 소개된다. 박물관이 최초로 공개하는 사료도 다수 포함돼 있다. 클라크 선교사가 1932년 출판한 ‘교회사회사업’과 평양신학교가 1942년 펴낸 ‘제1회 여자전도사감습회 교안’, 1933년 출판된 ‘유년만국주일공과’ 등이 공개된다.

“예장합동, WEA와 관계 단절은 국제적 고립”

WEA 부정적 여론 확산에 신학자들 긴급기자회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내에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는 신학자들의 긴급 기자회견이 15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 다사랑홀에서 열렸다.

지난해 예장합동 101회 정기총회에서는 ‘WEA 가입 및 교류금지’ 현의안이 상정됐고 WEA대책위(대책위)까지 구성됐다. 대책위는 최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전문위원을 선정해 자문한 뒤 “WEA가 세계교회협의회(WCC)처럼 정통 삼위일체론, 기독교, 구원론, 교회론 등을 멀리하고 세속신학과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보고서는 18일 열리는 교단 102회 정기총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장 박용규(총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 박

명수(서울신대) 교수, 이은선(안양대) 교수 등은 WEA가 성경의 무오성과 기독교의 근본진리를 고백하는 연합기구라고 강조했다.

박용규 교수는 “WEA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고, 종교다원주의를 포용하는 WCC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물론 성경적 진리를 파수하는 국제기구”라며 “WEA의 신앙고백문을 보면 성경이 정확무오하며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한 것을 믿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보고서를 근거로 예장합동 총회에서 WEA와의 교류금지 등이 확정될 경우 WEA 산하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역시 끊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WEA에는 129개국의 국가별 복음주의연맹과 7개 지역 기독교연맹, 150여 국제단체 등이 소속돼 있다. 이 교수는

“많은 복음주의 진영 목회자와 학자들이 WEA 산하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 아시아복음주의협의회, 복음주의신학회(ETS) 등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있다”며 “WEA와 관계가 틀어지면 이 역시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로교회(PCA)도 WEA의 핵심 회원이며 국내에서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속해 있다”며 “만약 예장합동이 WEA와의 관계를 단절한다면 이는 극단적인 분리주의를 표방하는 것이며 국내 타 교단 및 단체의 활동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의 교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박명수 교수는 “중요한 이슈인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한반도의 평화 문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계 교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WEA와 교류 단절은 곧 고립을 뜻한다. 한국교회는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와 연대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기감 ‘변칙세습 방지법’ 통과될까

장정개정안 공청회 시작…입법의회 상정 앞뒤

교계 최초로 ‘담임목사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교장 전명구)에서 ‘목회 변칙세습 방지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종교인 과세와 관련, 연회별로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관심거리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종교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정개정안(표참조)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정위는 14일 대전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26일 충남 천안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총회 입법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리교단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에 추가된다.

장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변칙세습 방지 법안’이다. 기감이 2012년 통과시킨 세습 방지법은 ‘부모가 담임목사 또는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으로 파송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부모가 담임, 장로로 있던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 분립을 했을 때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들어 교단 안팎의 일부 교회가 이 같

은 방식으로 목회를 ‘변칙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비하는 세부안도 제시됐다. 교회 세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세무사를 배치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연회 산하 재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기독교 전문 세무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감은 현재 국내외에 11개 연회를 두고 있다.

장정개정안에는 또 ‘무교회’ 신설 안도 포함돼 있다. 지나친 고소·고발 등 법적 소송을 막기 위한 교단

예장대신 수호측, 새 임원진 선출

대신총회에 교단명칭 사용불가, 재산반환 청구

지난 1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시흥 소망교회(이정현 목사)에서 제52회 총회를 개최한 예장대신 수호 측은 신임 임원진을 선출했다. 총회장에는 지난 회기 부총회장을 지낸 김동성(화성중앙교회)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목사부총회장에는 안태준(인천 등대교회) 목사, 장로부총회장엔 최광식(시흥 두란노교회) 장로가 각각 추대됐다.

예장대신 수호측은 대신총회에 두 가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조강신 총무는 “법원 판결을 통해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대신’이라는 교단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2015년 제50회 총회 결산 후 가져간 1억5000여 만원의 재산반환 청구”라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단 명칭 ‘대신’ 유지...교회연합사역 더욱 앞장

예장대신 정기총회, 총회장에 구 대신측 유충국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이 11일 장로교단 중 처음으로 201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말 예장합동 진리와 전적 통합하면서 8000여 교회까지 소속된 대형 교단으로 발돋움한 예장대신은 교단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한국교회 연합사역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기로 했다.

‘섬김으로 행복한 총회’를 주제로 충남 천안 백석대에서 열린 총회는 총대(총회대의원) 1,460명이 참여하는 예배와 성찬으로 막이 올랐다.

이종승 총회장은 ‘우리 총회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우리 교단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교단 통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장대신이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종교 편향, 이슬람 확산 문제 등 반기독교적 이슈에 대응하는 일과 더불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 침체된 교회를 살리고 부흥의

롤 모델이 되게 하는 일 등에 앞장서자”고 권면했다.

14일까지 진행된 총회에서는 가장 핵심안건인 ‘교단 명칭’에 관한 문제였다.

13일 오후 7시 넘어 속회된 총회에서 유만석 전 총회장은 “한국교회 할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통합의 정신을 지키고자 합의를 이뤄왔다”며 증경 총회장들로 구성된 정채자문단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항소심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교단 명칭을 ‘대신’으로 한다’ ‘(예장대신 수호측과의)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며 구 대신 측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 ‘임시총회는 이 합의안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개최할 수 있다’ 등이다.

이 과정에서 장종현 양병희 유만석 전 총회장 등이 발언에 나서며 “통합을 이룬 교단 식구로서 어려울 때 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총대들은 발표된 합의안에 기립박수로 동의의 뜻을 보였다.

한국 기독교 초기 사료 120점 한눈에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기획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관장 한동인 장로)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서 ‘제14회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기획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 설립자인 향산 한영제 장로가 일생 동안 수집한 한국 기독교 초기 사료 120점이

10년차 담임목사가 ‘신천지 반대 1인 시위’ 동참 이유

“미안해서 나왔습니다. 성도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방 앞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피해자들의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차재용(수원 거듭난교회) 목사의 말이다.

이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어 살갗이 따가울 정도로 햇볕이 강했다. 달궂진 보도블록 위로는 더운 열기가 이글거렸다. 모자도 쓰지 않고 서 있는 차 목사의 이마에선 땀이 송글송글 배

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설교 중 일부와 신천지 교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차 목사는 이들에게 다가가 “설교 일부를 가져와 기독교 교리라고 말하는 건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교단의 설교자가 말한 내용 일부를 기독교 교리라며 입맛에 맞게 편집해 비난하는 건 억지라는 것이었다. 20여명의 신천지 신도는 홀로 나선 차 목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어 차 목사는 성경을 갖고 토론해보자고 제안했다. 차 목

내지 못했다.

차 목사가 처음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007년 경기도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한 직 후였다. 하나님교회 신도들이 집단 포교에 나서는데 걸 보고 이단 대처를 시작했다.

신천지 피해를 가까이서 목격할 것도 이단 대응에 적극 나서게 만들었다. 현재 시무 중인 거듭난교회가 생기기 전, 같은 장소에 있던 A교회는 내부에 있던 신천지 신도들의 공격으로 무너졌다. 신천지 신도 3명이 신천지 말씀이 더 낫고 그들이 더 의롭

“신천지 3명에 무너진 교회 목격...교계도 대응했으면”

어 나왔다.

차 목사는 전국신천지피해자 연대(대표 홍연호)의 1인 릴레이 시위에 나고 있다. 차 목사는 “요한1서 3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룬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아무것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차 목사는 8개월 동안 신천지 신도들과 논쟁해서 이긴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수원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기독교 교리와 비교하며 신천지가 더 우월하다고 홍보하는 광경을 봤다. 교리 비교가 적힌 게시판에

사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어렵다고 물었다. 한 신천지 신도는 하나님 사랑이 더 쉽다고 답했다. 차 목사는 “요한1서 3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며 “온전한 형제 사랑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안 아무것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차 목사는 8개월 동안 신천지 신도들과 논쟁해서 이긴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수원역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기독교 교리와 비교하며 신천지가 더 우월하다고 홍보하는 광경을 봤다. 교리 비교가 적힌 게시판에

다며 틈만 나면 B목사를 공격했다. 결국 B목사는 교회 개척 3년 만에 목회를 중단했다.

차 목사는 최근 신천지가 ‘기독교한이슈플러스’라는 무가지를 통해 신천지 교리를 홍보하거나 대전 지하철 용문역 8번 출구역에 ‘신천지예수교회’라고 유사 표기하는 등의 사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은밀히 포교하던 신천지가 이제 대놓고 공개 활동을 시작했다”며 “교회 차원에서 지역별 신천지 대응 교회를 만들고 신천지 피해자들을 돌보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토소 선교칼럼 (29)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고통의 길

저는 교토소에서 사역을 하며 동성애 문제로 혼란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그들 중에는 동성연애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며 그 삶을 정산하려고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이 동성연애자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으므로 그러한 삶을 굳이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동성연애를 죄가 아니라고 부정부패하며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뿐 전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난 윌리엄은 30대의 젊은 재소자로서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토소 목사와의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동성연애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성연애 성향을 바꿀 수 없으며 동성연애하는 삶에서 나오기보다는 목사님이 그의 삶의 방식을 그냥 인정해줄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윌리엄은 동성연애가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단지 몇 번 언급했을 뿐인데 왜 거기에 마음을 써야 하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좀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그의 삶이 고통과 혼란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동성연애를 하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도 저의 지적에 수긍하며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삶은 죄책감과 자살충동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모르는 채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 매일을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러한 삶은 이미 그가 현실에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지옥의 삶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성연애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 삶을 떠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자살충동에 시달리며 그 삶을 계속하느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성연애가 바로 자신의 삶이므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뿐이며 자신이 동성연애에서 해방될 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목사님께 상담을 받으므로 그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윌리엄에게 동성연애의 삶을 계속 살면서 고통 하는 것보다는 평안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독신으로 살 것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예수님을 알고자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동성연애에 대한 생각도 점차 사라지게 되어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죄를 이기는 방법은 매순간 하나님을 알리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라고 권하자 그는 제가 독신으로 살라는 말에 놀란 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의 제안이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윌리엄을 방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목사님과 상담을 했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주시며 동성연애를 인정해주시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제안이 좀 실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통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평안 속

에서 사느냐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신 제안은 저에게 생각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평생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것 같아서 일단 평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알리고 노력하며 오늘 하루는 동성연애에서 떠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그에게 "아주 좋은 생각을 했네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면 차츰 차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되면 생각과 삶의 습관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성연애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윌리엄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저 자신의 욕망을 뒤로 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정을 하니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벌써 동성연애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어찌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사랑하는 여자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가 전에 없었던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이 저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에게 훌륭한 결정을 했다고 격려하며 계속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에 자신의 중심을 맞추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윌리엄의 고백에 의하면 그의 고민과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죄를 이길 영적인 힘과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 죄에 빠져서 고통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마귀에게 고통의 문을 열어 줍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간증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윌리엄은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 곧 말씀에 순종하므로 행동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윌리엄이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계속적으로 성경말씀을 읽으며 배운 바 말씀에 순종하는 기록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언젠가 자살충동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살충동과 같은 어두움에서 해방됩니다. 윌리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편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편 37:3, 4).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들면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는 때에 북한

의 김정은 정권은 이번에는 핵실험이 되었습니다. 또 귀국하시거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편 37:3, 4).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들면서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옴을 깨닫게 하는 때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번에는 핵실험이 되었습니다. 또 귀국하시거나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편 37:3, 4).

8월 마지막 주에는 충남대병원 공공의료팀으로 경현우 교수님(성형외과), 정일영 교수님(재활의학과), 이소민 간호사, 원종현 팀



함을 감행함으로 우리들과 세계를 향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의 문제야로 치닫고 있음을 주께서 언제까지 참으실지 알 수는 없으나 바라기는 남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 속히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더욱 기도하여야겠습니다.

8월에는 충남대병원의 장창은 선생님(유방, 갑상선외과)이 7월 중순부터 4주간 있으면서 여러 군데 병원과 클리닉에서 환자를 보시며 자문을 해주셨고 또 스와코에서도 진료로 섬겨 주셨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시 오셔서 섬겨주시기로 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기쁘지요.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중순에는 대전의 배사랑내과에서 이승민원장님(소화기내과)이 방문해 주셔서 위내시경 및 장내시경으로 섬겨주셨고, 이곳 스와코 지사들에게는 대장내시경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가능한 한 자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섬겨주시기로 해주셔서 참으로 큰



원인 방문하여 일주일간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우간다 시절부터 함께하셨던 강낙헌 교수님(성형외과)도 참여하시기로 하셨는데 출발 하루 전에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이 생기셔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경 교수님과 이소민 간호사가 너무 열심히 섬겨주셔서 예정된 환자들의 수술을 다 마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정교수님도 특히 관절 문제로 고통 받는 스와코 사람들을 여러 병원과 클리닉에서 너무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병원에서 특강도 해주셨구요.

이곳 여성들의 관절문제를 위해서 운동요법과 교육이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또 현실적인 통증치료도 함께 담당하여 힘을 강조하여 앞으로 더욱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금년도 일정 중 남은 4개월의 기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상주동역자도 함께 주시기로 하신데 로명재 원장님(재미 산부인과)부부께서도 9월 4일

기도제목
1. 새로운 상주 동역자(소화기내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등)들을 보내 주시기를
2. 단기 사역자(1-4주 내외)들을 보내 주시기를
3. 의대문제에 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도록
4. 간호부분, 의료기사부분, 행정부분 등 여러 분야 동역자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5. 새로운 진료사역 형태를 위한 보건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후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sykim@cnu.ac.kr

스와지랜드

에 무사히 잘 도착하셨고, 제반 준비들이 갖추어지는 대로 열심히 섬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의사면허와 장기비자를 이미 받으셨기에 스와코와 정부병원 및 클리닉들을 다니시면서 섬기실 텐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며 능력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의과대학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와지랜드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의 보고발표회가 9월 6일에 예정되어 있어서 발표를 한 다음 결과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회 발표를 잘 준비하고 발표하여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스와지랜드 국립대학교 측과 구체적으로 의과대 설립에 대해 의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스와지 정부병원 소아과에서 일반으로 근무하는 제랄드 룰레가 전북대학교 주찬웅 교수님의 초청으로 4주간 한국을 방문하여 소아심장분야 연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열심히 배워서 한국의료와 문화를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팀과도 잘 협력하면서 스와지에서 환자진료를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스와지 보건부와 더 잘 협력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섬기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 중인데 보건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잘 협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p> <p>Tel: (202)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오후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pton, MD 21042 http://www.bethelchurc.org/</p>	<p>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907)344-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pton,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위, 윤, 중, 고, 동부: (주)일요일 11:00, (금) 오후 8:00</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세례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위, 윤, 중, 고, 동부: 오전 10:45 중, 고, 동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Saxe,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u.org</p>	<p>앵커리지벨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회: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리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킬린노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p> <p>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죄악의 도시에서 정의를 주장하다

[라스베이거스] 길거리 설교자가 미국 헌장 제1장을 지키다가 지역 경찰에게 붙잡혀 6개월 징역과 1000불 벌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PJI(태평양법률협회) 변호사의 변호로 모두 해결되어 풀려났습니다.

워싱턴 주에 사는 론 카르디엘은 자주 라스베이거스를 가면서 라스베이거스 길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카운티 규율에 의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법을 어겼다고 하여 심문을 받았습니다. "브라더 론, Brother Ron"이라고 부는 카르디엘 전도자는 보도(Sidewalk)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 옆에 서 있었습니 다. 보행자는 보도 위에 걷지 않아도 자유롭게 보도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라스베이거스 경찰서는 카르디엘을 체포했습니다. 그가 보도를 보행하지 않고 서 있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카르디엘 씨에게 보도에서 있지 말고 가라고 했지만, 카르디엘은 경찰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카르디엘은 자신이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 헌법 제1항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경찰관은 경범죄로 위반 딱지를 받았습니 다.

카르디엘 씨는 종교 자유를 위해 사역을 하는 비영리단체인 본 태평양 법률협회, PJI로 연락했습니다. 본 협회의 레이 헤크 변호사와 지역의 협력 변호사인 데이 윌리엄 변호사는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카르디엘씨를 변호하기로 했고 8월 30일자로 법정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카르디엘씨에게 주어진 위반 명령은 불 합법적이고 그 이유가 미약하고 또한 경찰은 이 일에 대하여 과잉 처리였으며 경찰의 행동과 이유가 불투명했으

며 "브라더 론"에게 처한 법의 처신은 전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법에서 넘어가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스베이거스 거리 보도 위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입니 다.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지속해서 라스베이거스 지방 법원에 "브라더 론" 케이스를 취소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운티 지방법원 변호사는 "브라더 론" 케이스를 취소하기로 건의했습니다. 결국 이번 케이스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브라더 론의 이번 케이스는 너무 황당한 케이스였습니다"라고 태평양법률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의 결과 미국 헌법 제1장에 공식에서 개인적 믿음을 존중하는 종교 자유는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PJI는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라스베이거스 지방법원 검사는 브라더 론 케이스를 바르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소송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미 전역에 퍼져있는 길거리 전도자(Street Preacher)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던 사역을 계속하기를 격려하고 또한 사역하다가 형사범으로 검거되거나 벌금을 물 경우 꼭 PJI로 연락을 취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태평양법률협회 코리언데스크 rju@pji.org)

<4면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시원하게 목을 축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3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


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안에서 배개를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쳤습니다. 물이 배에 부딪혀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박해와 선교현장 (2)

[편집자주: 본지는 한국 오픈도어가 제공한 박해지에서 발췌한 "박해와 선교현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박해받는 선교현장의 생생함을 읽으며 독자 여러분의 선교적 도전을 기대합니다.]

라오스 (Laos)



- 종교: 불교(67%), 정령신앙(33%)
- 인구: 약 7,038,700명, 기독교인: 225,000명
-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4위
-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라오스의 박해상황

가족영역: 비록 가족 영역의 박해 점수가 다른 모든 영역들 가운데 가장 낮을지라도 작년 5.603에 비해 올해 8.013으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입수된 수많은 자료들 중 일부만이 반영되었을 뿐인데,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보고된 내용 중에는 가족들의 인적 사항을 폐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지난 보고기간에도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들의 기록을 폐기하는 행위는 출생, 결혼, 죽음과 같은 가족의 대소사를 불가피하게 신고하게끔 만들었다.

불교를 신봉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결혼과 장례는 방해받기 일췌이며, 세례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가운데 진행된다.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대한 '문화 교육'의 일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정식 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보고된 사례에 의하면, 기독교 학생들에게 불교 사원에서 행해

지는 불교의식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심지어 기독교 가정의 어린이들은 몇몇 학교로부터 입학할 때 불교를 배우는 경우도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족들로부터 이혼 협박과 상속권 박탈이라는 두 가지 공통된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

지역사회영역: 라오스 북부 루앙 남타(Luang Namtha) 주와 남부 도시 사바나케트(Savannakhet)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매우 힘든 지역이다. 여전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지역 안에 기독교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체포하며 집에서 쫓아내고 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와는 달리 위협하기 때문에 라오스에 위협을 가하는 서방세력으로 여겨진다. 지역 사회는 번번이 기독교 활동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과 마을 주민들, 지방당국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기독교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포

기하도록 폭행을 일삼고 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원조 차단, 위협과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기도 한다. 일례로, 출산을 앞둔 기독교 여성이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보고기간 동안 신앙 때문에 채용을 거부당한 기독교인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기독교인 사업가는 여러 다양한 차별대우를 경험한다. 또한 지자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일례로, 아홉 가정의 기독교인 38명에게 마을 지도자들은 80만 킵(kip: 라오스 화폐단위), 미화 약 \$100달러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벌금형뿐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달래야 한다는 명목으로 돼지를 제물로 바칠 것을 기독교 가정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 영역: 2003년 개정된 헌법 제 9조는 특별히 불교와 승려들을 언급해 가며 라오스 국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43조에 따르면, 라오스 시민은 종교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종교적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공포된 법령 92조는 전반적인 종교적 활동에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이 법령은 모든 종교 활동에 앞서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며, 정부의 사전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종교를 개종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또는 모든 교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기독교 지도자들의 경험으로 비추면, 정부는 교회활동에 거의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 최근 개정된 법령 92조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더 큰 어려움과 제약에 놓이게 되었다.

기독교는 라오스 문화의 근간이자 라오스 국가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불교의 신념을 명시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모든 라오스 남자들은 마르쿠스 사상 교육과 함께 병역의무와 군복무 의무가 주어진다. 마을 지도자들은 마을에 질병이 확산되면 죽은 영혼들의 노역을 때문이라며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공격한 가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처벌받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경찰과 지방당국,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언론 매체는 기독교를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며 죽은 영혼들을 노역게 만드는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교회 영역: 교회 생활에 있어 박해는 최고치에 달한다. 정부는 모든 교회의 동향과 기독교 관련 서적, 설교 등을 감시하고 있다. 라오스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복음주의 교회(LEC: Lao Evangelical Churches)들은 번갈아 가며 가정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감시하려 든다. 정부당국은 공산주의 이념에 반하는 모든 행동들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다. 때때로 기독교인들과 가정교회의 모임에 방해하고 있으며, 소외 지역일수록 박해는 더한다.

지역사회는 예배드릴 처소를 마련하거나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간섭한다. 가끔 지역사회는 교회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교회를 건축하기에 앞서 수많은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하는데, 특히 라오스 북부지역일수록 더욱 그렇다. 몇몇 시골마을의 지방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그들을 지방관청으로 출석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오픈도어)

그 말씀 한 마디에 바다가 고요해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안에서 배개를 베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큰 물결이 쳤습니다. 물이 배에 부딪혀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야단법석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셋째,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4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구비하여"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딱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방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 속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4절을 읽어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danielosh@hot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리더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가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주장

광야의 소리, 윤희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블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3. 영적 무장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것으로 방어를 위한 갑주일 뿐 아니라 공격을 위한 갑주로 완전 무장의 갑주라고 할 수 있다. 세속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갑주가 아닐 뿐 아니라 그 효능 또한 전적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의 권능에 의지하고 있다.

1)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띠는 의복의 모든 부분을 결속시킴으로 병사의 활동을 민첩하게 한다. 비진리인 마귀와 싸우기 위해 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영원하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로 허리띠를 단단히 띠어야 한다. 또한 진리에 입각해서 말과 행동이 진실 되고 성실할 때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한다.

2) 의의 흉배(호심경)를 붙여라

흉배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슴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당시 군인들은 가죽, 쇠, 또는 구리 등으로 흉배를 만들

었다. 화전은 화살 끝에 끈끈한 송진을 붙여 거기에 불을 붙여 쏘게 되어 있다. 모든 악감정, 반감, 교만이 불씨가 된다. 성도가 마귀와 싸울 때 이와 같은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 하는 믿음의 방패는 격렬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성도를 보호할 수 있다.

5) 구원의 투구를 쓰라
투구가 로마 병정들의 머리를 보호해 주듯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준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 지치지 않는 힘을 제공해 준다.

6)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라

마귀의 싸움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하였도다'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남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마귀와 투쟁하실 때 기도의 막강한 능력을 인정하셨다.

(1)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게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

(2) 깨어서 항상 기도할 것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의 기도를 해야 한다. 물론 항상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모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삼상12:23).

(3)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도록 항상 깨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

앞에서 언급했던 '사모와 중보기도사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막강한 능력이 된다. 하나가 전을 쫓으며 돌이만을 도망가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 특히 주의 종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 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한다(행4:19, 엡6:19).

모든 성도들을 위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도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모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야말로 영적 전쟁에 필요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믿음의 중보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승리의 승산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hslee39@sbcglobal.net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28)



이희숙 사모

어 가족 줄로 연결해 줄라매였다.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 (칭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의를 파기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인간을 정죄하려는 마귀의 공격을 바로 이 의가 흉배와 같이 성도를 보호한다. 하나님의 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는 최상의 선물이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싸우는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싸움은 끝나고 만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번쩍 번쩍 빛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오들오들 떨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줄행랑을 친다.

3)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이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케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다. 우리는 적의 공격을 막아야 할 뿐 아니라 적을 공격해 들어가서 사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빼앗아 옴으로 그리스도의 영력을 넓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말씀은 유일한 공격용 무기임을 기억하여 말씀을 많이 묵상할 뿐 아니라 암송해서 승리의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

4. 영적 전쟁의 방법

1) 기도와 간구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

기도는 영적 무장의 일부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그보다는 그 무장 전체에 관련되어 거기에 생명력을 주어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싸우는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싸움은 끝나고 만다.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번쩍 번쩍 빛나게 하는 것도 바로 기도다.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 오들오들 떨며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줄행랑을 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yahoo.com

월 속은 일꾼(롬16:1-3)찬387장

주의 나라는 드러난 일꾼으로 세워지지 않고 속은 일꾼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거저씨처럼 누룩처럼 은밀하게 일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마6:6). 첫째, 겐그레아의 비베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복음선교의 배후에는 비베같은 속은 일꾼이 섬겼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일꾼의 충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둘째, 이런 일꾼이 존경을 받아야합니다. 교회가 그런 일꾼

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야함은 그가 전한 주의 계시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런 일을 주께서 기억하십니다. 골방에서 한 일이 지붕에서 전파되고 은밀한 중에 흐르는 물에 던진 식물을 여러 날 후에 찾음은 주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 주님처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화 복음의 동역자(롬16:3-5)찬378장

사도는 복음전파를 위해 속은 동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브리스와 아굴라는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로 바울을 섬겼습니다(3-4).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렇게 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역자를 통해 주님이 일하십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4). 그의 집을 예배할 장소로 드린 것처럼 그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

다. 셋째, 복음의 첫 열매가 복음전파에 동참했습니다(5). 그렇게 고생 많던 소아시아 사역에 에베네도가 최초의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많은 사역, 많은 사람이 오가도 복음을 바로 받고 구원받아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런 충성된 동역자를 통해 지금도 세워집니다. 복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시다.

수 주의 일꾼들(롬16:6-10)찬271장

주님은 자신의 일을 혼자라도 하실 능력의 주이시지만 자기 백성의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영광에 동참시킴이었습시다. 바울의 수고를 따라 동참한 주의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첫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6). 믿음은 역사(사건)를 반드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의 칭찬 받는 자였습니다(7). 안도노니고와 유니아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도를 섬긴

것을 보던 사도가 존중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목숨내건 순수한 헌신은 사도의 사역에 큰 활력이 됐습니다.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 받은 자입니다(8-10). 그리스도안에서의 구원은 발전하여 그리스도안에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는데 서로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주안에서 거하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진보를 보여야합니다.

목 루포의 어머니(롬16:11-15)찬344장

전설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아내 곧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의 복음사역에 쓰임 받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소나비 내림같이도 하시지만 이슬비같이 조용히 스며드는 물처럼 일하십니다. 그 증거를 보이는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친척을 사용하셨습니다(11). 조기 복음사역에 바울과 관계된 친척의 자연스러운 관계에 크게 쓰

임 받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는 혈연관계도 주께 바쳐야합니다. 둘째, 사도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13). 사도처럼 그러지 못하나 사도의 연약을 담당하는 일꾼으로 주를 섬긴 것은 그의 남편이 억지로 십자가고 갔던 것처럼 헌신의 사역에 충신했습니다. 셋째, 모든 성도에게 문안했습니다(15). 복음의 수고는 특정인만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금 거룩한 입맞춤(롬16:16-18)찬178장

시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연합의 증거가 신약교회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전초기지는 이런 끈끈한 연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특정인과 단체의 수고를 열거하며 문안하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살아있는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거룩해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바탕

이 되어야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야합니다(17-18). 인간의 감정을 중심한 문안이 아니고 말씀의 깨달음에서 나온 사랑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문안하라고 합니다. 바른 교훈인 원복음의 가르침이 아닐 때 가차 없이 교제를 끊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성경적 교제로 혼란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토 하나님의 사업(롬14:20-23)찬313장

사도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합니다. 그는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첫째, 교회의 순종생활을 기뻐했습니다(19). 연약은 순종생활로 나타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에 절대순종함을 즐기는 부류입니다. 둘째, 선악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보고 기뻐했습니다(19). 선악을 드린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선악의 분별을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

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성경관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 실족하게 됩니다. 셋째, 구속의 완성을 대망함을 기뻐했습니다(20). 아이의 출생처럼 시작된 복음의 삶은 그 완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해야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소망의 인내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즐거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합시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외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for churches like Kumnan, Dundeon, Roman, Saeneon, Seungwon, Seongsil, Seungil, Sujeong, Seungdo, Siyeon, Singil, Shindeon, Shincheon, Shinchon, Anam, Yangok, Yangseong, Jangwe, Juangon, Changdo, and Cheungwon.

A REFORMING Catholic Confession

종교개혁 500주년...미국교회 “순전한 신앙고백문” 천명(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미국 교회가 종교개혁 정신에 입각한 “순전한 신앙고백문”을 천명했다.

크리스천리티 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교 총장들 그리고 교단 리더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동고백문에 찬성하는 2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신앙고백문”이 발표됐다 (-A Reforming Catholic Confession-A “Mere Protestant” Statement of Faith to mark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국가 별로 25개 나라, 신학 기관으로 110개 이상이 동참한 이번 고백문의 의미는 바로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것이다. 즉 종교개혁 500년이 남긴 유산을 바로 “다양성”으로 보고, 현재 33,0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신교회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종교 개혁 정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일치성의 회복과 갱신(calling for a recovery and renewal of catholicity)”이 담긴 동 신앙고백문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해당 사이트(<http://reformingcatholicconfession.com/>)에 가면 영어, 스페니시, 불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한국어로 12개 주제들에 달하는 신앙고백문을 볼 수 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동고백문 한국어 전문을 게재한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입각한 범교회적 신앙고백

교회 배경과 신학 전통이 다양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다음과 같이 한 목소리로 천명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무한히 위대하고 선하시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요, 빛과 생명의 유일한 참 원천이요, 자존하시며 영광스러운 빛과 주권적 사랑 가운데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서 동등하신 삼위(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로 영원히 살아계신 다(마 28:19, 고후 13:14).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구속하시는 과정에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데, 사랑과 거룩함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의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구원 역사 안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자신의 보배로운 소 유(신7:6)로 삼아 자기 영광을 찬양하도록 할 목적으로(엡1:3-14) 자기를 위하여 한 백성을 선택하고 조성하기로 자유롭게 작정하셨다.

성경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각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게 무류하고 중분히 명료한 규칙이자 권위다(오직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종들(시 119:105), 곧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로 표명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고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말씀으로서, 지식과 거룩함이 성장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다.

성경은 그것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명령하는 모든 바를 따라야 하며 그것이 약속하는 모든 내용을 신뢰해야 하며 그것이 밝히는 모든 진리를 추앙해야 한다(딤후3:16).

인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달하시되 특별히 인간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며(창1:26-27) 따라서 남자와 여자와 아이는 모두 하나님

의 은혜로 말미암아 본래적 존엄성(생득권)과 피조물로서의 소명(책임)을 부여 받았다.

타락

창조계와 인간이 본래 지녔던 선은 죄, 곧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정하신 생명의 법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함으로써 창조주와 창조 질서를 부정했던 자멸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롬3:23).

아담과 하와는 입법자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질서 대신 혼란(롬8:20-21)을, 인정 대신 신적 정죄를, 자신과 자기 자손들에게 생명 대신 죽음을 초래했다(시 51:5, 롬5:12-20).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요3:17),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딤후2:5)로(오직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 집의 종이요(롬 1:3, 15:8), 두 본성을 단일 인격에 지니신 분으로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혼란되고 손상된 타락한 실존 속으로 들어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값없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빛(진리)과 생명(구원)의 전달을 체현하셨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은혜 받은 자격이 없는 인간들에 대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악행과 타락과 범죄에 대하여 은혜로 예비하시되 먼저 이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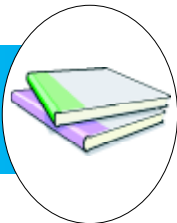
엘의 성전과 속죄제를 통하여 잠정적이면서도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셨고, 그 뒤에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 육체라는 성전으로(히10:11-12)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충분하고도 완전한 희생적 죽음(롬6:10, 벰전3:18)이라는 선물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셨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사53:4-6, 고후5:21, 골2:14-15).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도 우리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이다.



책 소개



‘예수님의 러브레터’

저자 김한요 목사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담임)의 요한계시록 강해 ‘예수님의 러브레터’가 거꾸로 미디어에서 출판됐다.

본서는 김한요 목사가 베델한인교회에서 주일마다 설교한 것을 묶어 책으로 펴낸 것으로 “이 책을 대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김 목사는 말했다.

또 김 목사는 “그 옛날 잘못된 계시록 영화에서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겨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는 성도로서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러브레터’란 제목을 삼았다”고 책 출간의 목적을 전했다.

본서는 총23장으로 엮여져 있으며 1장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단락별로 상세하게 수록돼 있다. 추천사를 통해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

환난 이기고 최후 승리 받는 성도에게 주는 요한계시록 강해

회)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우리의 영적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언급했으며, 정성욱 교수(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는 ‘하나

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강해집’이라고 치하했고 주선태 교수(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는 ‘코끝이 찡해지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책’이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했다.

또한 정인찬 총장(한국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은 ‘계시록 강해의 가이드라인 같은 책’이라고 말

하며 “예수님의 러브레터가 새 계시록 강해서가 되기 바란다”고 적극 추천했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와 목회자들이 추천한 본서는 “읽는 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신앙의 활기를 불어 넣어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한요 목사는 미국 이스턴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B.A)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M.Div)를 받았다. 저서로는 ‘넙킨에 쓴 연애편지’, ‘단순한 믿음’, ‘끌어안기’ 등 다수가

있다.

본 저서 ‘예수님의 러브레터’의 판매수익은 Good News Spreaders(대표 박병기 목사)의 사역을 위해 사용되며 기독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PCUSA 미국장로교회 남가주 하와이 대회 KPC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세미나

9월 21일 목요일

Sep. 21st Thur.

2017 500 YEARS Reformation

장소 Place 토랜스 제일 장로 교회 Torrance First Presbyterian Church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el 310 618 2222/ Fax 310 782 0937

오후 세미나 2:00 PM Prof. Joseph Small 전 PCUSA 총회 Director of Theology and Worship 'The Great Purposes and Uncertain Future of the Church'

저녁 집회 7:30 PM Dr. 김창환 현 풀러신학교 코리아센터 원장 '개혁신앙 중심의 공적교회' (행10:1-8, 47-48)

